

강진호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주홍 동화의 현실 인식 연구

200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장영미

논문 개요

이주홍은 60여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면서 아동문학의 대중성에 힘을 쏟았다. 재미가 있어야 독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문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문학관은 단순한 재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현실을 통해 우리 삶의 모순과 해결점을 찾으려는 작가의 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이주홍 동화의 주제적인 측면에서 현실 인식을 모색하였다. 이제까지 이주홍 동화의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어 왔지만 작품의 한 특성만을 가지고 개괄적으로만 다루어졌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좀더 총체적인 연구를 하기 위하여 작가의 생애와 작가의식을 살피고 아울러 이주홍 동화에 나타난 당대의 현실을 살피면서 그의 동화를 자리매김 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이주홍 동화를 연대기별로 나누어서 시기마다 뚜렷하게 나타난 현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식민지하의 세계에서 드러난 현실을 검토한 결과 1930년대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피폐했다는 것이다. 이주홍이 문단 활동을 처음 시작한 시기도 1920년대 후반인데 이 당시는 이미 우리가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우리의 농촌의 피폐함은 말 할 수 없었다. 이에 이주홍은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통해 소작인들의 궁핍한 현실을 묘사하였으며 일본과 우리나라의 종속관계에서 힘으로 지배하는 세계의 말로가 어딘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 현실은 지주와 소작인,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약한 자의 슬픈 현실을 보여 주었고 그에 대한 대응방식으로는 절망이 아닌 강한 의지와 저항

의식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주었다.

다음으로, 해방 공간과 전후의 현실에서 정국의 혼란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신과 불안정한 삶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나라의 모습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국민의 생활도 혼란스럽다는 현실을 동반하고 있다. 불안정한 정국은 서로를 불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결국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전쟁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는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인해 또다시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작가는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상 세계를 추구하는 희망의 문을 열어 보였다. 이상 세계로의 의지는 어려운 사회 현실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산업 사회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산업 사회의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와 해방 공간 그 전후의 사회는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발생한 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업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과 현실은 우리 모두가 불러일으킨 모순의 사회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개발의 봄은 자연과 생태계, 환경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연과 인간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다. 그런데 산업 사회에서는 이러한 공식을 잊고 마구잡이의 개발을 일삼아서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우리 모두가 노력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산업화는 물질적인 풍요는 가져왔지만 오히려 정신 세계의 빈곤을 가져왔는데 이는 인간소외 현상과도 연결된다. 물질적인 풍요와 황금만능주의는 인간의 존재를 경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인간을 무시하고 인간성을 상실한다면 삶의 즐거움을 잃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이주홍

은 산업 사회의 부정적인 현실을 부각시키면서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제시하였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요약에서 본 이주홍 동화의 현실은, 시대가 달라지면서 주제가 달라졌을 뿐이지 어느 한 시대라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주홍은 우리 아동문학사에 있어서 산 증인의 역할을 하였으며 방대한 작품과 아동문학의 대중성을 지향하면서 아동문학사에 한 획을 그었다. 또한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시대의 현실과 모순을 뚜렷한 주제 의식을 갖고 표현한 작가였다. 우리의 삶은 하나의 역사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주홍의 동화는 이런 역사의 현장을 예리한 눈으로 포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방법	1
2. 연구사 검토	5
II. 생애와 문학적 특성	10
1. 생애	10
2. 작가 의식과 문학적 특성	13
III. 이주홍 동화의 변모와 현실 인식의 양상	18
1. 식민치하의 현실 인식	19
1) 이중 고난의 농촌 세계	21
2) 강자와 약자의 세계	26
2. 해방 공간과 전후의 현실 인식	32
1) 불신과 불안정한 삶	34
2) 물질적인 욕심과 이상 세계	40
3. 산업 사회의 현실 인식	47
1) 자연과 환경 파괴 그리고 인간 소외	49
2) 비인간화와 평등 세상	54
IV. 이주홍 동화의 현실 인식 의의	59
V. 결 론	64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방법

문학은 우리의 삶을 반영한다. 삶의 다양한 모습을 반영하는 문학 속에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하고 문학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며 인생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인간의 실생활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으며 아동문학도 마찬가지이다. 아동문학은 아동을 주 독자층으로 하면서 아동에게 시대와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생각하게 한다.

좋은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서 읽혀지고 관심을 갖게 한다. 좋은 작품이란,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주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문학은 아동이 처음으로 만나는 문학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즐거움은 재미를 갖게 하는 것이고, 감동은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작가로 이주홍을 꼽을 수 있다. 그는 이 두 가지 특징과 함께 시대가 안고 있는 현실을 인식했다는 점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아동문학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심의 옹호를 문학 장르의 특성으로 삼고 있는데¹⁾ 이주홍은 이런 특성과 함께 아동도 사회의 일원으로 알 권리를 부여하였다. 동화가 동심천사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 그는 아동에게 당대의 현실이 어떠하며, 그 현실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며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을 썼다는 점을 눈여겨 볼 수 있다. 물론 동화가 아동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환상과

1)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1987, p223

꿈의 이야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올바르게 보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이주홍의 작품에서 당대의 현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며,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주홍은 아동문학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1920년대 후반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민족과 아동을 주체로 한 긍정적인 아동 문학가로 꼽힌다.²⁾ 즉 그는 작품에서 우리 사회를 무조건 미화(美化)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였으며 아동을 주체로 하여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아동의 위치를 어른과 동등한 위치에 놓은 것이기도 하다. 흔히 아동은 삶에 있어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주홍의 작품에서는 아동이 중심부에 놓이면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은 어린이들에게 당대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가운데서 더욱 가능하다. 당대의 현실이 옳든, 옳지 않든 어른과 어린이 모두가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동문학은 아동을 주 독자로 하는 문학이기 때문에 교육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동문학이 주된 독자를 어린이로 삼고 있으며 어린이에 대한 모든 문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명제가 있기 때문이다. 성인 문학에

2) 이오덕, 「아동문학과 서민성」,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작과 비평사, 1977, p138

이오덕은 이주홍, 마해송, 이원수 권정생 등의 작품 모색을 통해 불행한 아이들에 대해서 단지 그 어린이들을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 동류의식(同類意識)으로서 진정 어린이들의 불행을 해결해 주고 불행을 덜어주는 등 인간적으로 그들을 그린다고 하였다. 압제에 저항하는 정신과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옹호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작가라고 말한다.

서도 간접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드시 교육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없다. 그러나 아동 문학에서는 비교육적인 요소가 작품을 지배할 수 없으며, 선(善)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하여 악(惡)한 상황을 배경으로 두지만 작품 전체의 사상이나 흐름 속에는 반드시 교육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동문학의 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성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작품은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³⁾ 재미와 흥미가 없으면 동화를 읽으려는 어린이도 없기 때문이다. 작품을 통해 즐거움을 갖는 것은 문학의 또 다른 기능이다. 물론 문학이 즐거움을 가르치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즐거움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⁴⁾ 그러나 아동문학은 일반문학과 달리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⁵⁾ 다시 말해 아동문학은 즐거움과 흥미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흥미가 없어 아동이 외면하는 작품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이다.

이주홍의 동화는 아동문학의 특성인 교육성을 내포한 교훈의 의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재미의 요소를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면서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소재로 삼아 풍자적으로 고발, 비판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과 시대의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문학이 동시대(同時代)의 삶의 문제를 담는 그릇이라고 볼 때, 이주홍의 작품은 당대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간파하면서 의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아울러 볼 때 이주홍의 동화는 당대의 모순과 비합리성을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현실 인식과 함께 삶의 참모습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주홍의 동화에서 시대의 아픔이 무엇이었으며, 당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3) 박춘식, 『아동 문학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87, p34

4) 페리 노들먼,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1권』, 시공주니어, 2001, p68

5) 이오덕,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984, p59

현실을 인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기로 한다.

우리 역사는 굴곡도 많고, 할 말도 많은 격동의 시간들이었는 데 한 작가가 생을 살아오면서 그 세월을 모두 겪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주홍은 일제 식민치하를 시작으로 6·25라는 전쟁과 해방의 공간들, 그리고 산업화로 변화를 모두 겪으면서 굴곡의 시간들을 함께 했다. 다시 말해 그가 살아 온 시간과 공간들은 우리 역사의 현장임과 동시에 우리 삶의 교과서로 작용한다. 이런 역사의 현장을 그의 작품들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주홍이 문학 활동을 한 1928년부터 발표한 창작동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각 시대를 구분하여 시대적 환경과 아동문학계를 배경으로 현실을 파악하기로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대부분 통합적인 연구가 아닌 부분적인 연구가 되었기에 이주홍의 작품 세계와 문학관을 조망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본고는 연구에 앞서 II장에서는 이주홍의 생애와 작가 의식, 문학적 특성을 살피기로 한다. 이주홍의 생애는 기존의 연구에 다뤄지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주홍 동화의 등단작 발표연도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 앞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아울러 작가 의식과 문학적 특성을 살피는 것은 작가와 작품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작가 의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학관이라고 본다면, 문학적 특성은 좀더 객관적으로 작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III장에서는 이주홍이 활동한 문학 시기를 식민치하의 시기, 해방 공간과 전후의 시기, 산업화의 시기로 구분하여 시대적 환경과 함께 이주홍이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검토한다. 시대의 구분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를 초래한 시기를 기점으로 한다. 이주홍 동화를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전체를 조망하는 것은 이주홍 문학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주홍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당대의 현실이 하나의 현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에 앞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이주홍 문학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고찰하는 계기가 된다. 이주홍은 아동문학 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많은 작품을 남겼다. 먼저 천이두⁶⁾는 단편집 <해변>에 수록된 작품을 분석하였는데, 소설을 다루면서 작가적 자세까지 밝혀냈다. 신동한⁷⁾은 이주홍이 아동문학에서 출발은 했지만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한 점과, 향파의 문단활동을 세 시기로 구분하면서 문학적 특성을 살폈으며 그 외에도 이주홍의 소설세계를 다양한 각도로 해석⁸⁾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홍의 아동문학 연구는 그가 일궈낸 아동문학의 업적에 비하면 그리 활발하지 않다. 이재철⁹⁾은 이주홍의 문학적 특성 전체를 연구하였으며 초기

6) 천이두, 「양식과 관조 - 한국소설의 흐름」, 『월간문학』, 국학자료원, 1972

7) 신동한, 「이주홍론 세련된 현실달관의 세계」, 『신화』, 범우소설문고 22권, 범우사, 1977

8) 김천혜, 「두 편의 역사소설 이주홍의 〈어머니〉 〈아버지〉론」, 『부산문학』9집, 부산문인협회, 1982

김정자, 「모티브로 본 김정한 · 이주홍 소설의 문체적 특성」 『어문교육론』제8집,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1984

송명희, 「현대문학사의 산 증인 - 향파 이주홍」, 『부산문화』 4호, 부산문화회, 1985

김천혜, 「부조리에의 반역 - 이주홍의 〈수염난 동화〉론」 『부산문예』20, 부산 문인협회, 1986

류종열, 「위식된 삶의 풍자 - 이주홍의 소설 세계」, 『부산문화』13호, 부산문화회, 1987

김천혜, 「현실인식 문학」, 『월간문학』, 1987, 7월호

송명희, 「이주홍의 역사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문학도시』2호, 전망, 1995

남송우, 「이주홍 소설에 나타난 일상성과 역사성 속의 인물」 『문학지평』, 1996

강남주, 「삶의 환희에 대한 문학적 추구 - 작가 이주홍의 편모」, 『중심과 주변의 시학』, 전망, 1997

9) 이재철, 「이주홍의 문학」, 『한국아동문학작가론』, 개문사, 1983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송명희¹⁰⁾는 이주홍의 장편동화 「피리부는 소년」을 이니시에이션 소설¹¹⁾로 보면서 아동의 발달단계와 접목시켰다. 조대현¹²⁾은 이주홍의 동화 가운데 동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을 골라 그 특징을 살폈다. 이주홍은 작품에서 인물상 설정에 개척자인 헤안을 발휘는 하였지만, 그 인물상을 활용하여 줄거리를 엮는 구성면에 있어서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독서교육이 통합교육의 한 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선혜¹³⁾의 독서치료적 연구는 새로움의 시도이다.

그리고 학위논문은 이주홍의 작품 중 동화를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주홍이 60여년간의 창작 활동을 한 것에 비하면 그리 활발하지 않다. 이는 이주홍이 중앙 문단과 거리가 먼 지방에서 활동을 하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고, 또 다른 이유는 문학사 연구와 기술이 성인 문학에 집중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정춘자¹⁴⁾는 창작동화와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작가 의식이 동화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이주홍 동화 연구의 학위논문으로는 최초로 시도되었다.

10) 송명희, 「이주홍의 <피리부는 소년>과 이니시에이션 소설」, 『아동문학평론』43호, 한국 아동문학연구원, 1998년 여름호, 1998

11) 이니시에이션 소설은 자아와 세계에 대해 무지하거나 미성숙기의 주인공이 일련의 경험과 시련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이런 소설을 아동문학에서는 소년소설이라고 한다.

12) 조대현, 「이주홍 동물동화의 특징과 한계」, 『2003 이주홍 문학제 - 문학 세미나』, 이주홍 문학재단, 2003

13) 정선혜, 「이주홍 동화에 나타난 독서치료적 조망 -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그리고 적용」, 『2003 이주홍 문학제 문학 세미나』, 이주홍 문학재단, 2003

14) 정춘자, 「이주홍 연구 - 창작동화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박경희¹⁵⁾는 이주홍 동화에 내재된 재미를 중심으로 인물, 구성, 문체라는 세 항목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이주홍 문학의 특징 중 하나인 재미를 분석하면서 아동문학의 대중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하였다.

허영석¹⁶⁾은 이주홍의 소설을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일제 강점기, 해방 공간과 전후시기, 1960·70년대로 구분하면서 소설의 변모과정을 살폈다. 각 시기별로 나타난 소설의 변모는 필자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주홍 동화의 현실 인식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곽홍란¹⁷⁾은 이주홍의 동시 속에 투영된 세계관과 문체적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이주홍이 동화를 비롯해 전 장르를 아우른 작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도 의미가 있다.

손수자¹⁸⁾는 문체를 구조상의 특성과 문장에서 사용된 어휘의 특성, 서술 기법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런 문체적 특성을 교과서의 체재로서의 수용양상으로까지 연결하였다.

문종현¹⁹⁾은 이주홍의 동화 가운데 7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읽히는 동화를 대상으로 창작동화 교재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아울러 문학 교육 과정의 대안적 모색도 제안하였다.

정금자²⁰⁾는 이주홍의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 유형을 다양한 각도로 나누었다.

15) 박경희, 「이주홍 동화의 재미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16) 허영석, 「이주홍 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7) 곽홍란, 「이주홍 동시 특성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8) 손수자, 「이주홍 동화의 문체론적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9) 문종현, 「이주홍 동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문학에서 작중 인물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이주홍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차희정²¹⁾은 아동문학을 통해 아동의 인성을 모색하였다. 아동문학의 문학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읽기, 말하기, 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성영역을 확장시켰다.

이정임²²⁾은 이주홍의 동화 연구에서 초기 작품을 다룬 것이 거의 없다는 의도를 갖고 초기 동화를 1930년대의 사회 현실과 동화 문단 현실을 살피면서 계급 의식과 계급주의 극복 양상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는 이주홍이 60여년간 문학 활동한 것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지만 다각도로 연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주홍의 작품에서는 재미와 교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과 다양한 주제들을 나타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형식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다뤄진 연구이기 때문에 이주홍의 동화가 가지고 있는 작품 전체의 주제적인 측면을 조망하기 어렵다. 또한 이주홍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외형적인 특징을 개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갖게 한다. 한 작가를 이해하고 작품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작가가 활동한 시기의 작품 전체를 주제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주제적인 측면은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였느냐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주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인식을 다룬 몇 편의 논문이 있다. 먼저 정춘자는 이주홍의 문학 전체를

20) 정금자, 「이주홍 동화의 인물 유형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1) 차희정, 「아동문학을 통한 인성 교육 방안 연구 - 이주홍 동화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2) 이정임, 「이주홍 초기 사실 동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광범위하게 조망하였기 때문에 이주홍 동화의 현실을 자세히 살필 수가 없었다. 허영석의 연구는 이주홍의 소설 변모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면서 이주홍이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정임은 단지 1930년대만을 중심으로 현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주홍 동화의 전체적인 현실을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조망되지 않은 이주홍 동화 전체를 연대기별로 분류하여 그가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Ⅱ. 생애와 문학적 특성

1. 생애

향파 이주홍은 1906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1987년 1월 작고하기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아동문학을 비롯해, 소설, 시, 희곡, 수필, 번역 등 문학 전반에 걸쳐 방대한 창작 활동을 하였으며 창작 활동 외에도 연극 연출, 잡지 편집, 만화, 회화, 서예에도 조예가 깊었다. 이주홍이 살다간 시간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의 암울한 시대, 해방기의 혼란한 정국 등을 비롯한 격동의 연속이었다.

이주홍은 1918년 고향에서 합천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부친의 뜻에 따라 서당에서 수학하였다. 그림, 음악, 문학 등에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재주는 당시 천도교에서 발행하고 있던 잡지 『개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동네 뒷집에 천도교인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신인간』과 『개벽』이라는 두 잡지를 빌려서 읽고 문학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삼우』 『형제』 『신소년』과 같은 개인 잡지와 마을 신문을 펴내기도 하였다. 1922년에는 서울로 가서 고학을 하면서도 문학에 대한 꿈을 접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나 고된 가난으로 시골로 내려와 농사 일을 도우면서 『신소년』지에 글을 투고한다.

1924년에 일본으로 건너가 토목, 제과, 등에서 일을 하였고 이때 이주홍은 1925년 4월부터 1928년 3월까지 3년 동안 동경정리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것으로 여겨진²³⁾다고 한다. 그리고 이주홍은 투고한 작품이 당선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1929년에 서울에 돌아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배암새끼의 무도」가

23) 류종열, 「이주홍의 생애와 소설세계」, 『이주홍 문학저널』, 이주홍 문학재단, 2003, p126

1928년²⁴⁾ 『신소년』에 독자란이 아닌 본문에 실리면서 동요, 동화, 동극, 소년소설 등을 발표하면서 아동문학가로 활동을 하였고 프로레타리아 아동문학 운동에 매진하던 시기이다.²⁵⁾

평소 일제에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당하던 향파는 1945년 고향 합천에서 형사에게 붙잡혀 옥고를 치루다가 해방이 되어 풀려난다. 해방 후 조선프로레타리아

24) 지금까지 이주홍의 동화 등단 시기는 1925년이며, 작품명도 「뱀새끼의 무도」로 알려왔으나 ‘2002년 이주홍 문학제 세미나’에서 일본인 중촌수(中村修)가 등단 시기와 작품명의 오류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 후에 박태일은 「이주홍의 등단작 시비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등단작의 연도와 작품명이 잘못되었던 것을 ①등단제도와 관련하여 ②작가의 자술을 중심으로 밝혔다. 먼저, 향파가 작품 활동을 하던 1920년대와 1930년대는 특별한 등단 절차 없이 연소 간행물에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기성 문인으로 인정을 받아 활동을 할 수 있었고, 해당 갈래에 작품을 발표하여 곧바로 기성 대우를 받는 것이 당대의 문단 실정이었으며, 이주홍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고 한다. 그리고 1960년대 작가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라는 수필에서 자술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고 서술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창비 어린이』(창간호 2003 여름호)에서도 ‘새로 발굴된 자료란’에 이주홍의 「뱀새끼의 무도」를 참고할 수 있다.

25) 류종열, 앞의 책, p127~128,

여기서 류종열은 이 시기를 이주홍의 프로문학운동에서 중요한 상황으로 보았으며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신소년』, 『음악과 시』, 『별나라』, 『우리들』 등 카프계열의 잡지에 작품을 주로 발표하였고, 이들 잡지의 편집과 인쇄를 맡았다는 점이다. 둘째, 1931년 3월 중앙인서관에서 『불별』이라는 최초의 프로레타리아 동요집을 김병호, 양창준, 이석봉, 박세영, 손재봉, 신말찬(고송), 엄홍섭과 더불어 펴낸 것이다. 셋째, 『조선일보』에 1931년 2월 13일부터 21일까지 9회 연재한 「아동문학 1년간-금후 운동의 구체적 입안」이란 평론에서 1930년대의 프로레타리아 아동문학운동을 개관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동화, 소년소설, 소년시, 아동극 노래, 그림, 실제 운동에 이르기까지 아동문학장르와 운동이 언급되었는데 그는 조선 프로레타리아 아동문학 작가 동맹의 결성을 촉진하며 나아가 실제 소년운동가로 프로레타리아 운동을 하자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이 세 사실은 향파가 프로레타리아 문학 운동에 적극적이었고, 아울러 그의 사회주의 신념이 투철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문학동맹에 가입하여 조선 문학가 동맹 아동문학부 위원을 지냈으나 1947년 부산으로 내려와 사회주의 단체와는 손을 끊고 동래중·고등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연극 운동에 몰두를 하였다. 이때 희곡 창작 뿐 아니라 연출까지도 맡아 부산 연극계를 이끌어간다. 같은 해에 최초의 동화집 『못난 도야지』를 발간하기도 한다. 1949년 부산 수산대학교(현재 부경대학교)전임 강사로 부임하면서 창작의욕을 불태웠고 1966년에는 <문학시대>를 주재하였으며 1978년에는 구상, 송지영, 박노석, 송원희, 임신행 등과 <갈숲>을 창간하여 부산 문학의 산 증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김정환 박지홍 등과 함께 부산 아동문학회를 창립하여 아동 문학에 활력을 불어넣다가 1987년 1월에 타계하였다. 하지만 그 전에 제자들이 그의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 유지하기 위해 1981년 이주홍 문학상을 제정하였다. 소설 「영웅」으로 제1회 부산시 문화상(1957) 동화집 『외로운 짬보』로 제1회 경상남도 문화상(1976), 소설 창작 공로로 대한민국 예술원상(1979) 불교설화로 제1회 불교 아동문학상(1983) 동화·소년소설집 『사랑하는 악마』로 대한민국 문학상 아동문학부문 본상(1984) 등을 수상하였다.

그의 아동문학작품집으로 『못난 도야지』(1954), 『아름다운 고향』(1954), 『비오는 들창』(1955), 『피리부는 소년』(1959), 『외로운 짬보』(1959), 『톡톡할아버지』(1961), 『이주홍아동문학독본』(1962), 『어사박문수』(1966), 『섬에서 온 아이』(1968), 『정만서 무전여행기』(1968), 『서유기』(1969), 『살찐이의 일기』(1973), 『못나도 울엄마』(1977), 『청개구리』(1978), 『해같이 달같이만』(1978), 『가자미와 복장이』(1980), 『바다의 사자』(1981), 『아름다운 고향』(1981), 『오수릿골의 맹돌이』(1982), 『사랑하는 악마』(1983), 『소년 홍길동』(1983), 『철우 요술통』(1983), 『복치는 꿈』(1984), 『천신과의 약속』(1986), 등이 있고, 작고 후에도 『아기곰 형제』(1987), 『청개구리』(1987), 『조금만 더가지』(1991), 『바위나리와 아기별』(1993), 『청어뽕다귀』(1996), 『떨치』(2001), 『메아리』(2001) 등이 있다.

2. 작가 의식과 문학적 특성

작가의 의식은 작품을 통해서 표현된다. 작품은 곧 발언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으로서의 원초적인 몸부림인 것이거나,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의 부조리에 저항을 하는 것이거나, 필경엔 발언 이상의 것일 수가 없다. 굳이 그 발언의 덕부덕을 말하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순수한 자연인의 처지에서거나, 속박된 사회인으로서의 처지에서거나 얼마만큼 쓸만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만큼 감칠맛 있을 것이냐가 문제되어야 할 것 같다.²⁶⁾ 쓸만한 생각을 감칠맛 나게 쓰는 것이 작가의 소임이라는 이주홍의 작가 정신이 담겨 있으며 문학을 사회 현실에 대한 하나의 발언으로 생각하면서 삶을 재인식하려고 하였다. 이런 삶의 인식과 해석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살 수 있는 낙원을 원하지만 이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실 즐거움보다는 걱정거리가 더 많고 고통이 더 많은 세상이며 고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런 고르지 못한 세상을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제시하는 것²⁷⁾도 작가의 몫으로 돌렸다.

대중은 문학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도 한다.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작품을 어떤 형태로 풀어나갔느냐 하는 것은 더할나위 없이 중요하다. 이주홍은 그의 문학세계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인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암울하고 어두운 사회의 모습에서도 해학과 기지를 발휘하여 고통을 모면하게 하는 작가 특유의 기질을 갖고 있다. 소외된 계층의 삶을 재구성하면서 그가 제시한 것은 인간주의와 인간애이다.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에게 이해타산적인 자보다는 비록

26) 천이두, 앞의 책에서 재인용

27) 이주홍, 『피리부는 소년』, 산하, 1994, p6~7

어리숙하지만 착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모습에서 작가의 문학관을 볼 수 있다. 비극적인 상황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희극적 상황으로 재구성하여 그 속에 익살과 풍자를 담고 있는 것은 이주홍이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주홍은 아동문학의 문제점을 역설하면서 독자(아동)가 작품을 외면하는 이유로 작가의 확고한 방향 설정의 부재를 들면서 아동문학의 대중성을 지향하였다. 훌륭한 작품이 없지도 않은데 아동문학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은 바로 작가가 아동들과 거리가 밀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동 문학에 대한 학문적, 예술적 이해를 위시해 주제의 설정이나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아동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면서 그들이 즐겨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심리를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많은 작가들이 동화의 재미성을 무시하고 있다²⁸⁾고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문학의 기능에서도 흥미가 중요한 내용으로 되었다. 흥미가 없는 것은 작품의 가치가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흥미의 위치를 크게 내세우고 있다. 아동문학에서도 즐거움을 주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재미없는 동화를 읽으려는 어린이는 없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작품일수록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주게 된다.²⁹⁾

요약하자면, 작가는 작품을 통해 발언하면서 쓸만한 생각을 감칠맛 나게 써야 하며 삶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작가의 소임으로 여겼다. 그리고 약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긍정적인 모습과 인간애를 갖고 있었으며 이런 작가 정신은 이주홍이 문학 전반에 갖고 있었던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주홍은 아동문학관에 있어서 대중성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독자(아동)에게 다가가

28) 이주홍, 「나의 동화 소년소설관 창작동화에 대한 최근의 감상」, 『이주홍 문학연구 작가 작품론』, 대산출판사, 2000, p17~21

29) 박춘식, 앞의 책, p39

기 위해서는 재미성과 함께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에서는 이주홍의 문학적 특성을 살피도록 하겠다.

이원수는 “향파의 문학은, 서울의 외양 일색의 사회상과는 다른 진실로 서민의 애환을 그리는 따뜻한 것이었고, 차분히 생각하고 바라보는 인생관조의 것이었다”고 한다. 신변 잡사의 사소설(私小說)이 아닌 깊이 있는 사상에서 빚어진 무거운 작품이라고 한다. 이주홍의 동화는 화려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의 애환을 그렸는데 동화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든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을 소재로 한 점을 미루어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쉽게 지나치게 되는 소외계층의 삶을 깊게 생각하고 바라보았다.³⁰⁾

이오덕은 이주홍의 동화가 재미있다고 한다. 이런 재미는 “어린이의 마음과 그 삶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그 마음과 삶을 환히 그렸다는 것은 이주홍이 어린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 또한 동화 창작에 있어서 익살과 풍자가 넘치는 글로 웃기기도 하고 대화를 재미있게 전개한다³¹⁾고 한다. 이는 이주홍이 아동문학의 대중성을 역설하면서 재미를 강조한 뜻과 일맥상통한 점이다. 그리고 때로는 삶에 지친 경우에도 슬픔을 주기보다는 재미와 웃음으로써 승화시키는 점은 이주홍의 장점이기도 하다. 이주홍은 웃음은 어떠한 계층이나 어떠한 빈부의 장벽도 거침없이 뚫고 인간의 양심에 연결되며 웃음을 곧 생활의 활력소라고 한다. 그리고 웃음이 말라가는 오늘의 정신적인 위기 앞에 서서 우리는 웃음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³²⁾고 한 이주홍의 생활관이 문학관으로 연결된 것이다.

30) 이원수, 『동시동화 작법』, 웅진출판, 1984, p185

31) 이오덕, 『사랑하는 악마』, 창작과 비평사, 1983, p243~244(이주홍 동화집 해설)

32) 이주홍 편저, 『한국인의 웃음』, 1979, 성문각, 머리말에서 인용

그리고 이재철은 해학적인 문장, 건강한 리얼리즘을 가진 작가로 보았다. 그의 작품에서 해학이 넘치는 것은 웃음 그 자체의 의미로서보다는 현실적인 고통과 슬픔에 대한 승화라고 보아야 하며 온갖 금지사항에 묶여 있는 어린이들에게 웃음으로써 재미와 감동의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주홍은 작품에서 한결 같이 인간의善良的 면을 강조하며 그가 주장하는 좋은 상대적인 악에 의해서 부각되며, 결국 결말 부분에서는善良的 인간이 지배하는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다³³⁾ 고 한다. 이주홍 문학은 휴머니즘의 기초 위에서 작품을 써왔으며, 인간성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은 모든 문학의 기본적인 주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이주홍의 문학에서는 인간의 긍정적인 선함에 대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향토성이 짙고 자연스런 소재와 수법으로 어린이의 꿈과 소망을 나아가서는 민족의 얼과 혼을 심어주려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구수하고 감칠맛 나는 문장과 풍자와 해학이 갖든 대화와 사건이 들어 있다.³⁴⁾ 이주홍의 이야기에는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독특한 기지, 해학, 풍자의 맛이 있으며 강한 주제의식이 드러나면서도 아이들을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는 구수한 입말의 맛이 살아 있다³⁵⁾ 는 이재복의 평에서도 이주홍의 문학적 특성은 기지, 해학, 풍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풍자는 서구공격형이고 해학은 화해형이라고 하여 자기를 낮추어 연민을 자아내게 하여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면 때문에 아동용 주 대상으로 하는 문학은 풍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에 해학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런 풍자성을 지니고 있는 작가로 이주홍을 들 수 있다.³⁶⁾

손동인은 이주홍을 해학 문학의 선봉자로 꼽았다. 금지와 명령의 강요에 눌러

33)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작가론』, 1983, 개문사, p65

34) 이규희, 「밤을 걷어가는 아이 외」, 『소년소녀 한국 문학』, 1986, 금성출판사, p284

35) 이재복, 『우리 동화 바로 읽기』, 1995, 소년한길, p160

36) 정선혜, 「풍자동화를 위한 고대우화소설 분석 조선후기 우화소설을 중심으로」, 『한국 아동문학을 위한 탐색』, 2000, 청동거울, p55

욕구 불만인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주고 고통을 대변하여 주는 그의 동화를 휴머니즘의 승화로 보았다. 스토리 전개가 다채로워서 아동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재미를 느끼게 한다³⁷⁾는 부분에서는 이오덕의 견해와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주홍의 문학은 소외계층을 둘러볼 줄 아는 따뜻함이 있고 강한 주제 의식이 담겨 있으며 단순한 재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리얼리티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37) 손동인, (이주홍론)『아동문학평론 26호』, 아동문학평론사, 1983, p33~38

Ⅲ. 이주홍 동화의 변모와 현실 인식의 양상

문학이 사회 참여가 문제되던 때가 있었다. 그 참여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문인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사회 현실을 향하여 몸을 던지는 운동 방식과, 다른 하나는 작품으로 말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태도를 현실 참여³⁸⁾라고 하는데 이주홍은 후자에 해당한다. 참여 문학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캐고 그 부조리함에 저항을 하는 것이다. 아동문학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름답고 예쁜 것만 보여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현실을 알고 직시하는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점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 시대를 읽고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지만 시대를 그리고 반영하는 것은 작가 몫이기도 하다.

이주홍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갖고 현실을 바라봤다. 시대의 어둠과 사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역력하다. 그리고 그 현실을 드러내면서 직접적인 가르침보다는 우회적으로 웃음과 함께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주홍 동화의 현실 인식을 살피기 위해서 세 시기³⁹⁾로 나타내기로 한다. 식민지 상황에서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본 농촌의 현실과 어느 시대 어떤 곳이든지 있는 강자와 약자의 모습에서 당대의 현실을 살펴

38) 최지훈,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p96

39) 정춘자의 논문에서는 이주홍의 작품세계를 ① 1925년 - 1945년을 극복의 문학, ② 1945년 - 1960년을 순수와 그리움의 문학, ③ 1960년 - 1986년을 화해와 순응의 문학 등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주홍이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커다란 변화를 기점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보고, 해방과 그 전후의 기점에서는 어린이들의 세계와 산업이 발달되면서 나타난 산업 사회의 현실을 짚어보기로 한다.

이주홍 동화에서 나타난 모순된 현실을 보면서 시대를 읽고 현실의 문제점을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의미와 함께 다음에서는 이주홍 동화에서 시대마다 현실을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식민치하의 현실 인식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는 1910년 합방에서부터 1919년 3·1운동과 1945년 해방까지 만 35년 동안 무단통치와 문화정치로 탄압을 하였다. 합방에 반대하는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활동, 정치활동, 문화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등 철저한 탄압정치를 하였다. 무단통치를 문화정치로 바꾼 가장 두드러진 증거가 헌병 경찰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제도를 채택한 데 있다고 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무단 통치기의 헌병이 문화정치의 경찰로 옮겨갔을 뿐이다.⁴⁰⁾ 3·1 운동 후 문화정치가 기도한 민족분열 정책은 새 친일과 양성 정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침략전쟁이 중일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내선일체를 강조하여 조선민족성의 말살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1930년대는 식민지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일제의 탄압도 심화됨과 동시에 민족 말살 정책과 토지조사 사업으로 1930년대는 어두운 시기였다. 토지조사사업은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후 식민지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 결과 1930년대의 식민지 농업정책은 지주제를 강화하여 보호한 대신 자작농 및 자소작농을 몰락시켜 소작인으로 만들

40) 강만길,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p17

었다.⁴¹⁾ 일제의 수탈과 지주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에 농촌의 현실도 피폐해졌다.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 요구한 것은 초기에는 식량 및 원료조달과 상품의 판매시장이었다. 토지조사 사업은 수조권을 근대적 사유권으로 확립함으로써 조세 수탈과 식량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반봉건적인 식민지 지주제가 발전⁴²⁾하여 국민들은 이중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아동문학은 최남선의 「少年」 창간부터 小波의 「어린이」誌 탄생까지는 六堂과 春園을 중심으로 한 신문학운동 속에서 현대 아동문학이 태동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직 아동문학에 대한 뚜렷한 樣式的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것은 小派의 등장과 「어린이」誌의 창간부터 본격적으로 극복되어 문학을 통한 아동문화운동이 급속도로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기부터 아동문학계는 급격히 변하면서 프로문학의 대두와 문학적 자각 현상이 싹트기 시작한다. 결국 아동의 감성 해방보다는 아동을 통한 민족주의 운동으로서 독립의지를 키우면서 계몽적 위주에서 탈피하려는 현상이 시작되었다.⁴³⁾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그 극을 이루었으며⁴⁴⁾ 이 무렵 프로문학의 대표 작가들로는 이기영, 박세영, 홍구, 김우철 등과 이주홍이 있다.⁴⁵⁾ 이 재복은 많은 카프동화작가들이 보인 한계를 이주홍은 뛰어넘었다고 한다. 이주홍은 무리하게 작가의 의도를 넣어주려는 목적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아이들의

41) 강만길, 앞의 책, p88

42) 김대환 외,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열음사, 1987, p36

43)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집문당, 1983, p35

44) 이재철, 『한국 현대 아동 문학사』, 일지사, 1978, p169 30년대의 「별나라」 「신소년」 등이 시기의 여러 아동 잡지 및 각 일간지들을 통하여 계급주의 사상이 표현되었다. 1930년대에 와서 극성을 이룬프로 문학은 순수한 아동문학 자체의 존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정치적 목적 내지는 이데올로기의 선전에다 중점을 둔 운동이기도 하다.

45) 이재철, 위의 책, p171

세계를 뛰어넘어 어른의 세계를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아이들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어린이가 느낄 수 있는 삶의 한 조각을 쓰려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카프작가들이 갖고 있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목적의식을 해학과 기지의 기발한 착상을 통해 느낄 수 있게 표현했다⁴⁶⁾고 한다. 이주홍은 1930년대 작품을 발표할 무렵 문단의 분위기 초점에 맞추어 카프 계열에 분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단순 논리가 안고 있는 허망의 늪은 일제의 간악한 식민 경제 정책, 곧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를 통한 소작농의 대량생산과 유이민화 현상 속에서 신음하여야 했던 농민들의 고통을 다룸으로써, 겨레의 정서적 일체를 추구했던 작가의 의도를 해석하게 한다.⁴⁷⁾ 이런 의도는 다음의 작품에서 살필 수 있다.

1) 이중 고난의 농촌 세계

「잉어와 윤침지」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무서운 큰 물이 지고 마을은 온통 아수라장이 된다. 오늘 내일 먹게 되었던 누런 보리도 흔적도 없이 떠내려 갔다. 소작인들은 썩을 캐어 먹으면서 뼈가 마를 봄사리를 하면서 보리 가을을 견뎌 왔다. 천재지변으로 모판을 다 띄워 보냈기 때문에 일 년을 꼬박 굶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울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해가 저물기 전에 점석 아버지는 큰 잉어 두 마리를 꿰어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점석은 동생을 낳아 몸이 풀리지 않은 어머니가 ‘가므치 가므치’ 하던 것을 생각하니 반가웠다. 그러나 점석의 아버지는 윤침지에게 양식을 꾸기 위해 잉어를 들고 가지만, 그만 문간에서 개들에게 빼앗기고 넓적다리까지 물린다. 저

46) 이재복, 앞의 책, p170

47) 최명표, 「국권 침탈기의 어린이 문학 - 그 시절의 동화」, 『아침햇살』, 1996 여름호, p102~103

넉꺼리가 없었기 때문에 점석의 아버지는 윤침지가 두는 바둑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바둑에 진 윤침지는 점석 아버지를 담뱃대로 착 밀어내면서

.....

왜 왔어? 하라는 방천이나 안 하고 왜 무슨 볼 일이 있어 왔어 응?

.....

“저 죄송합니다마는 양..... 양식을 좀 꾸을까 하고 왔는데요.”하고 머리를 근지렀다.

“무어? 아니 남의 빚을 갚지 않고 아무리 자기가 지은 농사라거니 말도 없이 보리도 빼어먹고 또 양식이 무어야.....오! 잘 왔군. 이게나 가지고 가게.”⁴⁸⁾

하면서 던져 주는 것은 호세(세금)고지서이다. 다리도 물리고, 양식도 꾸지 못하면서 갖고 온 건 호세고지서다. 소작인들은 죽도록 농사를 짓고 돌아오는 것은 빚 뿐인데, 거기에 세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당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천재지변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이 더 궁핍해진 가운데, 점석의 아버지는 두 때를 굶으면서 잡은 잉어를 구경만 하고 윤침지네 개들에게 빼앗긴다. 이는 바로 소작인은 지주의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며 30년대의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소작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식도 꾸지 못하고 돌아온 점석의 아버지는 잠자는 점석의 얼굴을 보면서 세 알의 눈물을 떨어뜨린다. 한 방울은 지긋한 가난의 눈물이며, 한 방울은 부인에게 잉어를 고아주지 못한 미안의 눈물, 마지막 한 방울은 점석에게 거짓말을 한 미안함의 눈물이다.

48) 이주홍, 「잉어와 윤침지」, 『청어뽕다귀』, 우리교육, 1996, p193

마을 사람들은 무서운 큰 물로 모판을 다 띄워 보내고 모두 울게 된다. 한 사람이 몇 천 섬 몇 백 섬을 지었는데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이 지은 곡식섬은 모두가 윤침지의 고방 속으로 들어갔다. 큰 물로 인해 마을 사람 모두가 울고 있을 때 윤침지는 오히려 방천을 잘못 놓았느니 수통을 잘못 놓았느니 하면서 화가 상투끝까지 올라갔다. 눈 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하고 좀더 낮은 계층, 어려움에 처한 계층을 돌보지 않는 지주의 횡포를 보면서 30년대의 시대상과 계층간의 갈등을 생각할 수 있다.

「청어뺨다귀」는 동리에서도 제일 가련한 순덕의 어머니가 치도부역을 나갔다가 그만 앓아 눕게 된다. 순덕의 아버지는 김부자의 논 서마지기를 병작하고 있었는데 수해로 인해 개천이 되고 만다. 다른 사람들은 봄이 되어 모두 문혀진 논을 개간하지만 순덕의 아버지는 사흘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할 수 없다. 여러 날을 굶은 탓도 있고 어린 아들 영덕이가 죽은 이후로 만사가 귀찮았기 때문이다. ‘양식 꿀 데도 없고 돈도 취할 데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마냥 방 안에서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김부자가 찾아온다. 앓아 누웠던 순덕의 어머니는 쌀 한 홉과 청어 한 토막을 구해 와서 김부자의 상에 올린다. 고소한 밥 냄새와 청어 굽는 냄새를 맡고 꿀깍하는 순덕의 침 넘어가는 소리에 어머니는

“가만히 있거라. 상 물려 나오거든 너도 밥하고 청어하고 즐겨 응!”

.....

무엇에 흥분되었던 순덕이는 누구엔지 모르게 반항하는 목소리로

“엎다 다 먹으면 어찌는디……”하고 돌아누웠다.

“엥…… 어데 짹짹은 이가 다 먹는가. 남겨주느니라. 남겨주어……”⁴⁹⁾

하지만 순덕과 어머니의 기대를 저 버리고 물려 나온 밥상은 씻은 듯 깨끗했

49) 이주홍, 「청어뺨다귀」, 앞의 책, p167

다. 순덕은 핫김에 청어 뺨다귀를 씹어먹는다. 뺨다귀가 목에 걸려 울고 있는 순덕을 보고 병작을 떼여 화가 난 아버지는 순덕을 때린다. 천지가 무너지듯 우는 순덕을 보고 아버지는 그제서야 큰 고름 뭉치가 자기의 볼에 부딪힐 때 깨닫게 된다. 어깨 종점이 터진 것을 본 아버지, 어머니, 순덕은 한데 어울려 운다. 지주가 남긴 청어 뺨다귀를 빨아야 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순덕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소작인은 자신들의 몫도 갖지 못하면서 언제나 지주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순덕의 어머니가 차린 청어구이를 지주는 다 먹고 뺨다귀만 남겼다는 것은 바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순덕은 지주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이가 네댓이나 적은 지주가 아버지에게 '이 사람 저 사람'하는 것도 분해한다. 그래도 자기 집안에서는 제일 어르고 제일 거룩해서 도저히 다른 것으로는 비할 수 없으리만큼 높고도 위대한 아버지인데, 김부자 앞에서는 너무나 작아진 것이 가슴을 좌좌 긁고 싶도록 원통하다. 이런 순덕의 심정은 바로 1930년대 식민지 상황의 우리의 모습이다. 국권을 상실한 백성의 비극이기도 하면서, 높고 위대하게만 느껴졌던 조국이 침략국 일본 앞에서 너무 작아진 것으로 비유하고⁵⁰⁾ 있고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 제일 높고 거룩한 것은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그리고 단지 지주와 소작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이 작아보인다는 것은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크고 위대한테 식민지라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다. 이런 식민지상황의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은 「돼지 콧구멍」에서도 나타난다.

뒷집 돼지(지주네)가 종규네 집 호박밭을 맨탕 뒤져 놓았다. 돼지가 종규네 집 목숨이나 다름 없는 호박밭을 난리를 쳐서 호박 넝쿨이 다 끊어졌다. 호박을 팔

50) 손수자, 「이주홍 동화의 인물 유형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 2003, p49

면 그 동안 빛도 진 것을 갠아야 하고, 또 호박을 꼭 팔아야 할머니 소상날에 쓸 반찬 마리라도 산다. 그런데 돼지가 호박밭을 난탕쳐 놓았다. 종규 아버지는 뒷 집으로 쫓아갔다.

“주사 영감, 이것 좀 보시구려. 대체 하루 이틀 아니고 이래서야 없는 놈이 먹고 살겠수?”

주사 영감은 등을 부쳐 주는 삼월이의 부채를 멈추고는

“호! 그거 그래 됐나. 그렇지만 짐승이 한 일을 어떻게 하누! 일부러 사람이 시킨 것도 아니고…… .”⁵¹⁾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지주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종규는 우루룩 몰려 나오는 돼지를 보고 결방에 두었던 활을 가지고 나와서 돼지코를 보고 냅다 쏘았다. 활촉을 꿰고 달려간 돼지를 본 주사 영감은

“에, 이사람아, 그래 사람이 아무리 무작하기로니 말 못하는 짐승을 이런단 말이야?”

………

“그래 이게 무슨 경우야!”⁵²⁾

하며 김주사는 달려와서 눈불을 번득거리면서 ‘무슨 경우가 이러냐’며 피 묻은 화살촉을 집어던지고 간다. 하지만 종규는 그 화살촉을 다시 주워든다. 주사영감은 돼지가 호박밭을 망쳐 놓은 것은 어쩔도리 없고,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은 호박밭을 망친 돼지에게 한 풀이를 한 종규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돼지의 행동이 아니다. 바로 주사영감의 태도이

51) 이주홍, 「돼지 콧구멍」, 보리, 1999, p28~29

52) 이주홍, 앞의 책, p30

다. 김승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자신의 돼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돼지에게 화살을 쏜 것에 격분하는 주사 영감의 태도와 행동에서 가진 자의 무책임한 행동을 볼 수 있다. 좀더 나은 형편과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다. 폭력은 육체적인 힘으로서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언과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 또한 폭력이다.

그리고 여기서 작가는 단순히 30년대 농촌의 실상 뿐만 아니라 돼지와 호박이라는 상징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돼지는 식민지 상황의 일본을 상징하고 호박은 우리나라를 상징한다. 돼지가 목숨과도 같은 남의 밭을 망친 것은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며, 목숨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당하기만 하고 짓밟혀야 하는 호박은 우리나라의 모습인데, 한 마리도 아니고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호박밭을 난리쳐 놓은 것은 한꺼번에 몰려와 순식간에 우리나라를 빼앗은 일제의 행동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식민지하에서 우리나라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주홍은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보면서 주저앉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일어서서 화살촉을 갈아야만 하는 우리의 상황을 종규의 행동으로 대신하고 있다.

2) 강자와 약자의 세계

어느 시대건 강자와 약자는 있기 마련이다. 강자와 약자의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억압과 지배를 받는 쪽이 약자라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1930년대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가 약자라는 사실도 분명하다.

이주홍은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개구리와 두꺼비」에서 여실히 보여준다. 개구리와 두꺼비를 내세운 우화에서 강자와 약자의 자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구리들 사이에서도 힘센 놈과 약한 놈 사이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데 힘센 개구리들은 즐거움과 욕심만 채우다가 결국 약한 개구리에게 쫓겨나게 된다. 힘센 개구리의 최후는 같은 집단 내에서도 자신의 이익만을 채웠기 때문에 생긴 인과응보의 모습이다. 큰 개구리인 두꺼비는 약한 개구리들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고방감독을 시킨다. 하루는 감독 개구리의 어머니가 배가 고파 큰 개구리 고방 속으로 몰래 들어가 먹을 것을 훔쳐 먹다가 들켜 죽게 된다. 감독 개구리가 그 일을 항의하자 그 마저 죽여버린다. 그 소문이 퍼지자 약한 개구리들이 이 골목 저 골목 성난 홍수와 같이 일어난다. 아무리 큰 개구리라 해도 엄청난 수에는 당할 수 없어 쫓기는 신세가 된다. 육지로 쫓긴 큰 개구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쪼쪼 굶게 되어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된다.

지금 여러분들도 밭고랑이나 돌담밭 속에서 몇 십 년이나 굶은 듯한 허느직한 얼굴로 커다란 눈 꺼무럭 꺼무럭 하고 있는 두꺼비를 보시겠지요. 어찌보면 불쌍한 듯도 보이는 마치 아편쟁이나 장돌뱅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그 문둥병자같이 살이 푸둥푸둥하고 커다란 몸집을 보십시오. 그래도 옛날에는 많은 약한 개구리들의 피땀을 굶어먹고 저렇게 살이 쪼인 것이랍니다.⁵³⁾

이 작품은 덩치 큰 개구리와 약한 개구리로 대비되어 계급 투쟁을 다루고 있다. 무산계급과 유산계급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게 된 유래 뿐 아니라, 약한 개구리의 행동을 빌어 계급모순을 벗어나는 방법과 모순 극복의 믿음을 삼고자 한 뜻이 확연하다.⁵⁴⁾ 는 점에서 계급투쟁의 의미도 갖고 있지만 같은 집단끼리도 극

53) 이주홍, 「개구리와 두꺼비」, 『청어뽕다귀』, 우리교육, 1996, p181

명히 나뉘지는 당대의 모순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식민지 상황이라는 시대상에서 친일파들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동포끼리 한 마음이 되어도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가 힘든데 일본의 편에 서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 요컨대 이주홍은 「개구리와 두꺼비」라는 우화를 통해 같은 동족끼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간접적인 노선을 취하면서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강자와 약자의 모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함께 한 번쯤 강자와 약자라는 자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있다. 덩치가 큰 개구리는 영원히 작은 개구리를 누르며 자신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큰 개구리를 몰아낸 작은 개구리는 작은 힘도 모으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진리와 함께 강자와 약자의 모습과 자리는 언제나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야기 들려주는 형식으로 시작한 「호랑이 이야기」에는 호랑이와 벌이 등장한다. 호랑이는 자신의 큰 덩치만 믿고 땅벌을 건드린다. 호랑이는 수 천 마리가 모여 사는 땅벌집을 누르면서 땅벌을 숨도 쉴 수 없게 만든다. 이로 인해 따뜻한 양지 밑에서 평화롭게 살던 수 백 마리의 벌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게 된다. 벌들은 밤새도록 모여 호랑이를 죽일 의논을 하게 된다. 호랑이는 먹이감을 찾기 위해 죽은 채하려고 자신의 몸에 거미줄을 둘둘 말아서 누워 있다가 수만 마리의 벌에 쏘여 구렁으로 떨어져 죽는다. 호랑이는 강한 짐승 벌은 약한 짐승이라는 대립의 구도를 내세우고 있다. 이 작품에서 호랑이와 벌은 외양으로는 싸움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 자신의 덩치만 믿고 스스로 없는 행동을 한다. 벌집을 누르고 있는 호랑이의 발을 치워달라는 벌의 말에 호랑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호랑이의 이런 행동에 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54) 박태일, 「이주홍의 초기 아동 문학과 〈신소년〉」, 『이주홍문학재단』창간호, 2003, p76

사람 세상이나 짐승 세상이나 권세 좋은 친구들이 배짱 뻔뻔하기는 매
일반이겠지요.……“아니, 이 친구가 기운만 좋답시구 누구를 깔보는 셈
인가. 왜 이렇게 대적도 안해!”……적은 힘도 모으면 커지고 큰 힘은
언제든지 적은 힘을 이긴다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겠지.⁵⁵⁾

호랑이보다 덩치가 훨씬 작고 대적이 되지 않는 벌이 호랑이에게 당당하게 말
을 한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떠나서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고 있다. 작은
힘도 모으면 언젠가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1934년에 발표한
이 이야기는 비록 우리가 현재로선 억눌려 살고 있지만 적은 힘을 모으고 모아,
큰 힘을 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홍의 동화는 읽는 순간은 재미가 있
다. 그리고 다 읽고 난 후에는 다시 한 번 내용을 생각하게 한다. 세상살이가 언
제나 강자와 약자의 모습이 영원해야 하며, 약자는 언제나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
간다면 약한 자들의 희망은 없을 것이다. 희망을 보여주고 그 희망을 제시하여
주는 「호랑이 이야기」는 1930년대라는 당대의 고통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기본 테두리는 전래동화 「호랑이와 토끼」를 깔고 있다. 우
리 전래동화에는 강하거나 부하거나, 큰 존재에 대해 약하거나 가난하거나 작은
자의 대비가 잘 되어 있고 이 대비에서 앞의 것은 어리석고, 뒤의 것은 현명하여
마지막에는 반드시 뒤의 것이 이기도록 된다. 이것은 역사의 현실이 아니고, 민
중들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난 것⁵⁶⁾이다. 덩치 큰 호랑이가 꽤 많은 토끼에게 당
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끝나가는 「호랑이 이야기」는 바로 민중들의 소망인
것이다. 강한 자가 힘으로 누를 때 약한 자는 지혜로써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암시
한다. 많은 사람이 쉽게 아는 전래동화를 빌어와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

55) 이주홍, 「호랑이 이야기」, 『톡톡 할아버지』, 우리교육, 1996, p34~36

56) 이오덕, 앞의 책, p26

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호랑이 이야기」는 비록 짧은 동화이지만 그 안에 제시하고 있는 영향력은 크고 깊다. 암흑의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현실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심어주고 있다.

「청개구리」는 엄마 청개구리와 아이가 우거진 독 밑 토막에서 살고 있다. 엄마 청개구리는 떡을 팔아 아이들의 학비를 대었다. 하루는 공주의 결혼으로 시가행진을 하는데 엄마 청개구리는 떡을 많이 팔 생각으로 한 길 거의 담벼락 밑에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대궐쪽에서 순라병 두 명이 말을 채찍질해 달려오더니만 떡장수 청개구리 앞에 와 멈추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왜 이런데서 떡을 팔고 있는 거야!”

“나리!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떡장수를 하고 지내는 불쌍한 여자올씨다. 한 번만 잘 봐 주십시오.”

“도대체 그 꼴이 뭐야. 거지라도 그 보다는 나은 옷을 걸치고 있을거야. 조금만 있으면 임금님 일행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 걸레 조각 같은 걸 걸치고 있는 것을 보여 드려서 될 거난 말이야?”

.....

“무슨 여러 소리가 많아! 임금님의 눈에 안 띄게 하기 위해서 저 위에 선 길 옆에 있는 초가집들까지도 죄다 강제 철거를 시킨 판이야. 빨리 꺼지란 말야. 꺼져! 꺼져!”⁵⁷⁾

엄마 청개구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떡을 많이 팔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담벼락 밑으로 가지만 순라병에 의해 쫓겨난다. 백성들이야 어떤 고통을 당하든 지배층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는 순라병의 태도는 당대의 관리들의 모순성을 보여준다.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떡을 팔아야 한다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

57) 이주홍, 「청개구리」, 『청개구리』, 꿈동산, p50~51

히려 엄마 청개구리의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호통만 친다. 그 사이 아들 깨쇠는 같이 놀 친구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깨쇠는 또순아의 주머니에서 흠친 돈으로 과자를 사가지고 산으로 올라간다. 날이 어두워져서 산을 내려온 깨쇠는 길에서 또순아의 아버지를 만난다. 깨쇠를 혼내려고 하는 또순아의 아버지에게 사람들은 말린다.

“또순아, 아버지” 오늘은 그 애를 용서해 주시오. 아까 애의 엄마가 여기서 떡을 팔지 말라는데도 자꾸만 되돌아와서 팔고 있더니만 그만 꽃마차의 말에 치어 죽어 버렸답니다.”

“꽃마차가 왜 장사하는 사람을 쳐 죽였대요?”

“대궐에서만 살아 온 말이 거지보다도 더 해진 옷을 입은 걸 보고 놀라서 뛰다가 그 떡장수를 죽인 거랍니다.”

“그럼, 그 시체는 어찌 했답니까?”

대궐에서만 살아 온 말에 의해 깨쇠의 엄마는 치어 죽고, 깨쇠는 엄마의 시체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 부분에서는 가난한 서민층의 삶을 여실히 볼 수 있다. 대궐에 사는 말의 모습은 화려한 꽃마차로 대변하고 그에 비해 서민층은 거지보다도 더 해진 옷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화려하고 초라한 겉모습의 비교는 당대의 서민층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 모습조차 감춰버리는 것은 관리를 비롯한 지배층은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실의에 빠져있던 깨쇠는 꿈 속에서 엄마를 만난다. 깨쇠의 엄마는 현실 세계에서는 비록 초라한 차림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꿈 속에서 만난 엄마의 모습은 공주처럼 아름다웠다. 이는 깨쇠가 엄마의 모습이 아름다웠으면 하는 소망을 반영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초라하고 천대받는 것보다는 대우를 받으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깨쇠의 마음이 담겨있다. 또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왜곡된 모습으로 일관하는 관리들의 모습은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을 말한다. 「청개구리」는 임금→순라병, 순라병→서민이라는 관계에서 강자의 무력과 약자의 나약함을 볼 수 있다.

문학은 허구가 필요하다. 허구는 말 그대로 현실의 삶처럼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을 그대로 베끼는 복사는 아니지만 사실처럼 느끼도록 사실감을 주면서 현실을 모델로 하여 꾸미는 것이다. 문학은 이 허구로 가치있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다.⁵⁸⁾ 그리고 허구를 쓰되 현실의 삶을 예리하게 바라보며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개구리」는 피지배층의 궁핍한 현실의 삶을 바탕으로 사실감을 주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제시하여 주고 있다.

2. 해방 공간과 전후⁵⁹⁾의 현실 인식

일제 강점기를 벗어나고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6·25라는 전쟁의 비극과 함께 혼란한 사회를 맞게 되었다. 전쟁의 무서움도 있겠지만 전쟁 뒤에 찾아오는 혼란 또한 엄청난 시련을 가져온다. 1945년 해방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계속

58) 최윤식 외, 『문학 교육론』, 집문당, 1988, p55

59) 우리가 흔히 전후의 문학, 혹은 전후의 공간이라고 할 때는 시기적으로 한국 전쟁(1950-1953) 이후에서 1960년대 초까지를 말한다. (김윤식 소설과 현장 비평 - 새미출판 - p 252) 하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1960년대 후반까지를 전후의 공간으로 하기로 한다. 산업사회가 1970년대를 기점으로 더욱 발전하였고, 본 연구의 주제가 현실 인식이라는 점으로 볼 때 이주홍의 동화에서도 1960년대 초반과 후반을 아우르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된 민족운동의 성과이자 강대국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제 2차 세계대전의 소산이었다. 그리고 해방 직후 자주민주국가를 건설하려는 민족운동이 고양되었으나,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좌절되었으며 그 결과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권이 수립되었고, 민족은 분열되었다. 1950년의 한국전쟁은 민족분단의 불안정을 토대로 발발하였으며, 냉전적 국제적 질서로 말미암아 확대되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엄청난 수의 이재민과 전쟁 고아, 이산가족을 낳았다. 4월 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국가와 사회의 혼란은 어른과 어린이 모두의 삶을 황폐화 시켰다. 아울러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로의 경제성장은 가져왔지만 계급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⁶⁰⁾

해방 전후의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아동문학은 前代의 문학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의지가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던 모색기였다. 새 국가 창건을 통한 새 民族像의 정립을 향한 새로운 문화 운동이 활발하였고, 이를 통해 문학의 진로를 찾으려는 몸부림이 이 시기를 통하여 일관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6·25전쟁을 맞는 민족적 수난을 당하여 그러한 모색은 좌절되고 한 때 대중문학의 팽창을 초래한다. 1960년 4·19까지의 이 시기는 대중적인 아동문학이 순수본격 아동문학과 갈라지는, 곧 아동문학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시기이다.⁶¹⁾ 그 특징을 좀더 자세히 말하면 50년대는 정치적 사회적 격동기 속에서 아동문학계도 경제적 궁핍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중적 영합을 문학상에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문학의 형식면에서는 시대적, 현실적 상황으로 경제 가치가 있는 산문문학이 운문문학보다 우세한 결과를 가져왔다. 산문문학의 경우 전쟁소설, 순정소설, 모험, 명랑, 탐정소설 등이 성행하게 되어 대중문학으로의 팽창기를 이루었으며 풍자문학, 현실의식, 환상과 현실

60)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2, p359~360

61) 이재철, 앞의 책, p35~36

의 교감에 의한 문학성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는 50년대 후반에 들어 제도화된 아동문학 신인등용문의 신춘문예가 정착되고, 작가들이 친목 위주의 문학단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작품활동 중심체제로 변모되었는데 이 결과로 60년대 아동문학은 작가들의 문학의식이 투철하게 확립되었다. 문학자체의 경향도 생활적인 리얼리즘의 아동소설과 순수동화작가에 의해 동화세계의 본질이 옹호되고 추구되는 등 활발한 움직임으로 동화창작에 있어서의 다양한 모색이 시도되었던 시기⁶²⁾라고 할 수 있다.

1) 불신과 불안정한 삶

「비오는 들창」에서 종무와 강희는 춤무공 이순신 연극 공연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논에서 어른들의 싸움을 보게 된다. 극심한 가뭄으로 서로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종무 아버지와 강희 아버지가 싸웠는데 결국 어머니들까지도 싸우게 된다. 그 모습을 지켜 보던 종무도 강희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의 귀를 잡고 피가 나도 놓아 주지 않자 강희 어머니 손가락을 문다.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는 논의 모가 젓가락처럼 배배 꼬이듯 사람들의 마음도 배배 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 논이 바짝 마른 탓에 사람들의 마음은 여유가 없고 마치 메마른 사막과 같다. 이런 사막과도 같은 현실과 사람들의 마음을 다음처럼 묘사하고 있다.

머리가 따끈따끈, 피약별이 아플만큼 따가웠다. 구름이 모여들다가도, 하늘은 다시 말끔하게 개곤 했다. 한달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 없는 논엔 벌써 진작부터 모가 젓가락같이 배배꼬였다. 꼬이는 것

62) 이상현, 앞의 책, p300~308

만 아니라 빨강게 댔다. 도랑을 파는 사람, 함지박으로 웅덩이 물을 긁는 사람……사람들은 논두렁을 왔다갔다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야단들이었다. 저수지도 빈 솔처럼 바짝 말라 있었다.⁶³⁾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이라는 비극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슬프고 힘든 현실을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구름이 모여들어서 곧장 비를 뿌려줄 것 같으나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우리의 분단이라는 문제도 해결이 될 듯 하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다. 사람들이 도랑을 파고 함지박으로 웅덩이를 긁는 것 또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시도이지만 아무런 대책도 찾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싸움이 있는 그날 밤 동에서 밀가루 배급이 나왔지만 종무는 강희를 대하기가 무서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종무는 다음날 학교에서 연극 연습을 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대하는 강희를 보면서 고마움과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연극이 끝날 무렵 바깥에선 푹, 푹, 푹, 하고, 뜻하지 않은 비가 온다. 기쁨을 알리는 비를 보기 위해 아이들은 문밖으로 달려나가고 강희도 말 없이 창 밖을 응시한다.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비는 모든 근심을 씻어줌과 동시에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씻어 주고 있다.

만약 강희가 종무에게 잘잘못을 따졌다면 서로가 미워하는 마음의 골은 더 깊어져서 화해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강희는 어른들이 싸움을 하고 미워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작용에 의한 미움이라는 것을 알고 때문이다. 비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농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비록 농촌의 모습이 아니라 분단이라는 당대의 현실이다. 시대가 처한 모습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그 문제는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63) 이주홍, 「비오는 들창」, 『못나도 울엄마』, 창작과 비평사, 1977, p142~143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답을 알게 된 강희와 종무의 마음은 끝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몰아치는 바람과 함께 먹장 같은 구름이 북으로 몰려 들어갔다. 종무는 어서 계속해서 비가 오기를 빌었다. 비가 오면, 아무도 물싸움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종무는 강희 옆으로 가까이 붙어 섰다. “동에서 어제 밀가루 배급이 나왔대.” “응, 앞집에서 들어서 알았어.” 강희는 그냥 고개를 돌리지 않고, 비내리는 들판만 바라보았다. 일꾼들이 비를 그냥 맞으면서, 기운을 내어 논두렁을 왔다갔다 했다. 강희와 어깨를 맞대고 비 구경을 하고 섰으려니, 종무는 까닭 모를 행복이 온 가슴 속에 빠르게 차오르는 듯했다.⁶⁴⁾

잘못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강희의 깊은 배려에 종무는 말 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 또한 종무의 행복감은 분단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자신이 상대를 이기는 것은 굳이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상대를 먼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이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상대의 잘못을 밝히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대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비오는 들창」은 어린이의 삶은 어른의 삶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⁶⁵⁾ 어른의 삶이 어려우면 어린이의 삶도 어렵고 어른이 처한 현실은 결국 어린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64) 이주홍, 앞의 책, p149~150

65) 이재복, 「우리 동화 바로 읽기」, p168

이재복은 이주홍이 해방 이후에도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빼앗긴 자, 소외된 자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주홍의 작품 가운데 「비오는 들창」을 수작으로 꼽았다. 이 작품은 어린이들의 삶은 어른들의 삶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심천사주의 문학과 계급주의 문학의 양쪽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전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은 결코 개인만의 삶일 수 없으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다.

1968년은 60년대를 정리하고 경제 성장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발표한 「섬에서 온 아이」는 어린 남조가 섬을 떠나오면서 시작된다. 남조는 부산에서 떨어진 국도라는 섬에서 살다가 친구 인자가 말한 도시의 화려함을 듣고 섬을 떠나온다. 화려함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 남조는 선창에서 아이들을 팔아먹는 할머니를 만나 식모살이를 하게 된다. 이 이야기는 각박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난한 아이들의 슬픈 현실을 담고 있다. 남조와 인자는 선창에 도착하면 서부터 도시의 매정함을 느낀다.

숨을 두 번 정도로 쉴 사이가 없이 두 소녀는 또 밀려서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 누군가 두 팔로 헤치면서 급하게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바람에 인자는 앞으로 엎어질 뻔하다가 그만 앞의 사람의 발꿈치를 밟았다.

“이 삼들이 뭐 하는 짓고!”

뒤돌아 보면서 인자의 가슴을 왈각 때미는 사람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손에 자그마한 자루를 들고 있는 키 큰 노파였다.

“눈깔도 없나, 남의 발을 밟그로!”

응그러대는 눈이 아주 무서운 할머니였다.⁶⁶⁾

남조는 이렇게 선창에서 내리면서부터 매정한 사람과 현실을 맞게 된다.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자그마한 아이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도시의 삭막함과 누군가를 밀치지 않으면 자신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도시의 삭막한 현실은 내용 중간중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높으나 높은 집들과 하늘을 그물로 뜨듯 얽힌 전선’들은 남조와 인자, 두 소녀의 눈을 어지럽게 하고

66) 이주홍, 「섬에서 온 아이」, 『못나도 울엄마』, 1977, p153

넋을 빼앗는다. '다른 것들은 등이 있고 또 눈도 들 썩 제대로 붙어 있었지만, 전차는 앞도 뒤도 없고 눈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 우는 소리조차 쉰 목소리'를 낸다. 물론 도시 문명이 가져다 주는 좋은 점과 편리한 점은 말 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순박하고 때묻지 않은 섬소녀들에게 비친 모습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빠르고 편리함을 주는 전차는 앞과 뒤의 구분이 없고 마치 앞 뒤 생각 없이 살고 있는 도시인의 모습과 같다.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선창에서 부딪친 노파는 남조를 삼백 원에 식모로 팔아 넘긴다.

남조가 식모살이 하게 된 집에는 선창에서 만난 노파와는 또 다른 삶을 사는 할아버지가 있다. 망령이 들어서 방 안에만 있는 할아버지는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아는 덕택에 남조를 비롯해 손주인 권일리와 미혜에게 인기가 많지만 돈을 벌지 못한 이후로 며느리에게 온갖 수난과 구박을 받는다. 남조를 식모로 팔아넘기면서 돈을 받아 챙긴 노파와, 구박을 받으면서 사는 권일의 할아버지의 모습은 도시의 화려함과 달리 약한 자들의 슬픈 현실을 엿 볼 수 있다. 노파가 어린아이를 식모로 팔아넘기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과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서 구박을 받는 권일의 할아버지는 약한 자들을 보살피 주지 않는 사회의 실정이기도 하다.

「비오는 들창」에서는 종무와 강희를 내세워 어른들의 현실은 결코 어린이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섬에서 온 아이」 역시 어른들의 현실과 행동은 어린이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기도 하다. 남조가 떠나오기 전에 살았던 섬, 국도는 처녀가 나서 시집갈 때까지 쌀 한 말을 못 먹고 간다고 할 정도로 가난하다. 가난이 싫어 남조는 외로이 계시는 할아버지를 뒤로 하고 화려해 보이는 부산으로 오게 된다. 여기서는 도시의 화려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당대의 어려운 현실 가난과 각박한 도시 생활을 말하고 있다. 남조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식모살이를 하면서 쌀쌀맞은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온갖 고통을 겪는다. 남조

는 처음 지어본 쌀밥을 태워서 아주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반찬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며 옆구리를 찔러 왈왈 땀다. 권일의 할아버지가 재미있게 하는 얘기를 들으려고 권일의 친구들이 밤늦게 모여들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들켜 권일과 미혜, 남조는 혼이 난다. 그 와중에 남조는 사건의 전모를 캐려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실컷 두들겨 맞는다.

미혜 엄마는 아픔을 못 이겨서 소리를 지르는 남조의 입을 뿔뿔이 뜯어막으면서 때리고 있었다. ………중략……… 안으로 들어간 미혜 어머니는 남조를 축담에다 내버려 둔 채 마루문을 걸고 자기의 방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맞았으면 귀가 딱딱하고 골이 육신육신하는 것뿐, 추운 것도 아픈 것도 다 느껴지지 않았다. 미혜 엄마가 더 때리지 않고 가준 것만이 도리어 고마울 정도였다.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환한 시가지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⁶⁷⁾

남조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맞은 것은 큰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맞은 것이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섬을 떠나오면서 남조는 ‘쌀밥 먹는 육지, 스웨터와 즈봉’을 입을 수 있는 육지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남조는 주인 아주머니로부터 억울하게 맞아서 귀가 딱딱하고 골이 육신육신 쭈셔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처럼 이 시대의 도시 발전은 계속 되지만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마땅한 개선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할아버지 밑에 사는 남조의 처지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을 말한다.

67) 이주홍, 앞의 책, p203~204

2) 물질적인 욕심과 이상 세계

때로는 인간이 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 악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바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좀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좀더 나은 삶을 살려고는 하지만 결국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항상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

「가자미와 복장이」는 의인동화이다. 가자미가 납작하고 복장이가 배불뚝이가 된 유래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 가져오는 재앙을 말하고 있다. 두부 장사를 하는 가자미와 기름 장사를 하는 복장은 앞 뒷집에서 서로 의좋게 산다. 그러나 겉으로만 의좋은 체, 따지고 보면 모두 인색한 욕심장이고 번갈아 외상을 가지고 가서 몰래 팔아 먹는 음흉한 인물들이다. 어느 흐린 날 가자미와 복장은 장에 가서 깨와 콩을 사오려는 생각으로 길을 나섰다. 그러나 둘은 불일도 다 보지 않고 가자미는 복장이네 곳간으로, 복장은 가자미네 곳간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다.

① 섬안에 손을 푹 넣자, 매끈매끈한 깨가 살에 닿았다. 반가와서 죽을 지경이었다. 가지고 간 자루에다 얼른 퍼 담았다. 자루에 담뿍 차고도 섬에는 아직도 깨가 남아 있었다. 못 다 넣게 되는 것이 원통했지만 어찌는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깨를 두고 있으면서도, 깨 없다고 극성만 부리던 복장이가 생각할수록 미웠다. 무엇 좀 더 손해 보여 줄 것이 없나 하고, 가자미는 코를 쫓긋했다.⁶⁸⁾

② 섬 안으로 손을 푹 집어넣으니까, 매끈매끈한 콩이 살에 닿았다. 반

68) 이주홍, 「가자미와 복장이」, 『아동문학독본』, 을유문화사, 1962, p40

가워서 죽을 상했다. 이렇게 콩을 넣어 두고 있으면서, 콩 살 돈이 없노
라고 엄살을 피웠구나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꽤 씹혔다. 가지고 간 자루에
다 콩을 퍼 담았다. 넘어오르도록 퍼 넣어도, 그래도 콩은 남았다. 다 못
넣는 것이 원통했다.⁶⁹⁾

①과 ②는 가자미와 복장이가 상대의 공간에 들어가서 깨와 콩을 자루에 담은
것이다. 가자미는 복장에게, 복장은 가자미에게 서로 빌려간 콩과 깨가 없다
고 하면서도 공간에는 쌓아둔 것이 콩과 깨였다. 자루가 가득 차서 더 못 넣게
되는 것을 원통해 할 정도로 욕심이 많다. 인간들도 하나를 가지면 또 하나를 갖
고 싶어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커보이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 큰 욕심은 언젠가는 눈물과 후회를 낳게 마련이지만 후회는 돌이킬
수 없다. 결국 가자미와 복장의 끝없는 욕심은 화를 불러 일으킨다.

③ 마약 깃묵 주머니를 물고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딱다그르르……하
고, 별안간 천지가 무너지는 소리를 하면서 번갯불이 번쩍했다. 이 서슬
에 기름들이 팡 떨어지면서 가자미를 납작하게 눌러 버렸다. 사람 살리라
할 새도 없었다. 몸뚱이가 종잇장같이 납작해 졌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올
것인가! 번갯불은 연거푸 번쩍거리고, 비는 역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⁷⁰⁾

④ 콩을 틀어 놓고 물을 마시고, 또 콩을 틀어 놓고 물을 마시고 했다.
이러는 사이에 별안간 번개가 번쩍하더니만, 하늘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
다. 이 서슬에, 복장은 저도 모르게, 땅바닥에 펍 엎어졌다. 복장이만
엎어진게 아니라, 같은 때 두부 공간도 엎어져 버렸다.……중략……복장
이는 있는 힘을 다 내어서 콩자루를 떠밀었다. 딱다그르르……하고, 번갯
불과 함께 천둥 소리가 또 한 번 났다.⁷¹⁾

69) 이주홍, 위의 책, p42

70) 이주홍, 앞의 책, p41

가자미는 비를 맞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곳간 구석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빨로 깻묵 주머니를 꿰다가 결국 ③과 같은 모습이 된다. 그리고 복장이도 콩을 자루에 가득 넣은 것도 모자라 곳간에 두고 나오는 것이 못내 아쉬워하다가 ④처럼 된다. 복장은 입에 콩을 가득 넣은 상태로 바다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다가 배가 볼록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가자미와 복장은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다가 영영 원수가 된 채 살고 있는데 지금도 서로가 항상 흘려 보고 있다고 한다.

가자미와 복장을 내세운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의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 내세우는 세상은 함께 나락의 길을 가게 된다. 시대가 변하면서 나눔의 정은 갈수록 없어지고 각박한 세상을 사는 당대의 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모습이 우습게 된 상태에서 상대방과 타협하지 않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 자신의 분에 넘치는 것도 다른 사람의 것이라면 무조건 더 많이 가지려는 물질적인 욕심을 부리는 인간의 모습과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가자미와 복장을 보면서 어느 시대든 인간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아침길」에서 찌이와 짹은 서로 사돈간이다. 누나와 형의 결혼식에서 찌이와 짹은 처음 만나 친하게 된다. 어린 두 쥐는 신작로로 놀러를 갔다가 읍내에서 제일 부자인 박주사네로 가게 된다. 박주사네 창고에서 실컷 먹고 놀다가 그 집 방안을 들여다 보게 되는데 방 안에서는 한 청년이 박주사에게 애원을 하고 있었다.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간이라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주사는 거절을 한다.

71) 이주홍, 앞의 책, p42

“동포 동포 하지만, 우선 내 배가 불러야 동포가 있지. 아직 나 그런 생각이 없소.” 이번에는 박주사의 아들이 하는 말이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우리 조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튼튼한 발판위에 놓여지려면…….”

“애애, 그 조국 소리 귀에 딱지 앉겠다. 우리끼리만 돕는다는 건 뭐냐. 외국사람이라도 이익만 있는 일이라면, 다 저절로 돕게 되는 거야.”⁷²⁾

이렇게 박주사는 다리 밑에 우글거리는 이재민을 좀 도와 달라는 청년의 말을 거절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가난한 상황에서 같은 동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박주사의 모습은 가난의 고통을 나누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기심이 담겨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의 모습과는 달리 박주사네 창고와 부엌에는 맛있는 것이 많아서 그 안에 있는 쥐들은 오히려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아무거나 먹지 않을 정도이다. 저녁 무렵 짜이네 주인 박서방이 삼촌인 박주사에게 돈을 꾸달라고 찾아온다. 박서방의 아버지(박주사의 형님)가 병환으로 누워 있다는 말을 듣고도 박주사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돈을 꾸주지 않는다. 그날 밤 박주사네로 장사치 한 사람이 찾아온다.

“지금 시골에서 좁쌀이 떨어진 모양이오. 시장에 나와 있는 좁쌀을 당는 대로 모조리 사 모으도록 합시다.”

“이 사람아, 값싼 좁쌀을 사서 무슨 이익이 생기나?”

“영감은 모르시는 말씀이오. 지금은 아직 식량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지만, 조금만 더 있어 보셔요. 좁쌀이라도 부르는 게 금일 것이오.”⁷³⁾

72) 이주홍, 『아침길』, 『청어뽕다귀』, 우리교육, 1996, p141

73) 이주홍, 위의 책, p143

라는 장사치의 말에 박주사도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박주사는 매점매석으로 더 많은 부를 취하려고 한다. 이는 동포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 없이 자신의 부만 축적하려는 가진 자들의 속셈이다. 값싸게 사서 비싼 값을 받아 다시 되 파는 교묘한 상술로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다. 1960년대 말은 우리 경제가 부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잘 사는 계층보다는 못 사는 계층이 더 많은 실정이었다. 그런데 좀더 많이 가진 자들은 나누어 가지려는 마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아침길」은 바로 이런 모순된 현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박주사 집에 도둑이 들어 그의 집은 난장판이 된다. 어렵게 사는 동포를 외면한 박주사의 행동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외로운 짬보」에서 종운이와 길래는 종이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 짐승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 가게 된다. 짐승들이 사는 숲속 나라⁷⁴⁾에서 재미있고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비록 꿈이었지만 돈과 권력을 우선시 하고 약한 자를 얕보는 허울 좋은 인간 세상을 꼬집고 있다.

종운이와 길래가 도착했을 때 숲속 나라는 '여름문화제'를 하고 있었다. 어린 손자의 손을 이끌고 들어가는 산돼지 할머니, 머리에다 기름칠을 한 여우 신사, 구두땀이 생쥐 아이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 되어 어울리는 곳이다. 숲속 나라에서는 자신들과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짐승도 없고 입고 있는 옷

74) 「외로운 짬보」에 나오는 숲속 나라는 이원수가 쓴 「숲속 나라」를 동경하는 것이다. 이원수의 「숲속 나라」는 1949년 2월호부터 12월호에 걸쳐 「어린이나라」에 연재되었으며, 판타지 형식을 취하면서 해방공간에서의 이상사회를 그리고 있다. 어린이들의 나라에서 자유와 사랑과 자주의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추악한 모습이 없는 이상사회를 닮으려고 하고 있다. 종운이가 배를 타고 도착한 깊은 산중에서 아름다운 불빛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혹시 말라꿈이 아저씨(이주홍이 이원수를 가리켜 말라꿈이라고 하고 그의 동화에서도 말라꿈이 이원수를 등장시킨 작품들이 있다) 가 쓴 「숲속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종운이가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왔을 때도 그의 옆에는 말라꿈이 아저씨가 놓고 가신 동화책 한 권 놓여 있었다.

도 처음 보는 옷이라고 해서 다르게 보지 않고 사람과 짐승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한 곳이다. 종운이와 길래는 꼬마 다람쥐의 도움으로 숲속 나라를 구경한다. 숲속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에겐 아무데나 가도 밥을 거저 먹여 주고 학교도 그냥 보내준다. 종운이와 길래, 꼬마 다람쥐가 함께 박물관에 들어간다.

“숫! 떠들지 말고 와!”

“감옥이니?”

“감옥은 요담에 있어! 이걸 우리 나라 대표 어른 호랑이 아저씨의 관사야.”

“애개! 요게 대표 집이야.”

“왜 대표 집은 더 커야 하나? 그렇지만 참 맘씨가 좋으셔! 기운도 켈 세시고! 한 번 들어가 보랴?”

……중략……

“아까 말하던 감옥은 이거야.”

……중략……

“이 벼룩, 빈대, 모기. 진드기, 파리, 쥐, 별의별 놈들이 다 많지. 모두 나쁜 놈들야. 가만히 놀구서 남의 피만 빨아먹고 사는 놈들이거든? 이 키, 여기도 한 놈때여 오는군 그래!”

손에다 붕대를 감고 근사하게 검정 안경을 쓴 늑대 새끼 한 마리가 뒀여서 오고 있다.

“이놈은 깡패야. 하라는 일은 안하고서 밤낮 썸질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나쁜 놈야.”⁷⁵⁾

종운이와 길래는 높은 사람은 크고 좋은 집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숲속 나라에서 높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기운도 세지만 맘씨도 좋은 대표였다. 하지만 숲속 나라에서도 무조건 남에게 의존하거나 폭력을 휘둘러서 피

75) 이주홍, 앞의 책, p89~90

해를 주는 경우에는 감옥에 가뒤퍼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종운이와 길래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다방에 들어간다. 그 곳에서 '짬보 선생 피아노 독주회'라는 포스터와 함께 피아노를 치는 짬보를 만나게 된다. 짬보는 태어날 때부터 울고짜고 해서 짬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재주가 있어서 동리에서 돈을 거둬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유학을 마치고 와서는 아무도 상대를 하지 않고 저 혼자만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짬보는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은혜를 모르는 인물이다. 그래서 숲속 나라에서 하는 종합 예술제도 참가하지 않고 피아노 독주회를 하는 것이다. 모든 이를 우습게 여기는 짬보의 행동에 숲속나라 짐승들은 아무도 독주회를 가지 않고, 이에 화가 난 짬보는 술집을 비롯해서 케이크 집 등 모든 곳에서도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지만 돈이 없어 보기 좋게 퇴짜를 맞는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금의 반성도 없으면서 짬보는 세상이 위대한 예술가를 몰라 본다고 세상과 주변인들을 원망한다. 자신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예전의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인간을 묘사하고 있다.

종운이와 길래는 다시 꼬마 다람쥐를 따라 다시 도토리 다방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별안간 밖에서 붓물 터지는 소리에 놀라면서 자신들이 타고 온 배가 걱정이 되어 뛰쳐 나와 산마루로 올라가니 벌써 짬보가 와서 배를 잡아타고 나무둥치에 매어 놓은 줄을 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 종운이와 길래도 이에 지지 않고 기어올라 갔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밧줄이 끊어지면서 짬보는 배를 타고 달아나고 종운이와 길래는 앞으로 쏠리면서 천길 만길 산골짜기로 굴러 떨어졌다. 그러면서 종운이는 낮잠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이원수의 「숲속 나라」가 따뜻한 마음과 자립정신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나라⁷⁶⁾를 이상향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주홍의 「외로운 짬보」에 나오는 숲속 나라도

당대의 현실이 재고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짬보라는 인물처럼 행동을 하면 그 인물이 잘났어도 결코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인물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꿈과 현실이라는 공간을 이동하면서 숲속 나라가 결코 꿈에서만 있는 곳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위와 아래가 없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기가 죽지 않는 모습, 잘나고 못났어도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평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상향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이상향의 구체적인 모습은 종합예술제의 막이 오르면서 모두가 소리 높여 부르는 국가(國歌) 합창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숲속 나라 사이 좋은 식구들 만나면 손목잡고 웃음으로 반기네
우리는 숲속 나라 싸움없는 식구들 서로 도와 일하고 노래하고 즐기네⁷⁶⁾

이렇게 숲속 나라의 국가(國歌)처럼 모두가 사이 좋은 식구로, 웃으면서 반기면서 서로 일을 도와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3. 산업 사회의 현실 인식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산업화의 과정에 돌입하여 여러 가지 사회 변동을 겪게 된다. 경제의 급성장과 근대적인 산업체제의 확립, 도시의 확대화, 대중문화의 확산, 사회 구조의 변화와 생활패턴의 다양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의 확대 등은 모두 산업화과정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한국 사회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⁷⁸⁾ 한국의 근대화는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미

76) 박종순, 『이원수 동화 연구-사회의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 2002, p191

77) 이주홍, 앞의 책, p110

78) 권영민,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p 213

래사회에의 비전 제시, 합리주의적 사고방법의 확대, 능력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밝은 면을 열어보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물신론, 전통파괴, 갈등심화, 소외현상 등으로 얼룩진 그늘, 실로 심각하고도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 놓기에 이르렀다.⁷⁹⁾ 이런 산업 사회는 많은 변화와 아울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병폐를 가져왔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자연을 파괴하면서 환경을 오염시켰고 금전 만능주의 팽배는 인간성 상실과 비인간화를 야기시켰다는 부정적인 모습이다.

1970년대 아동문학계는 60년대에 등단한 작가들이 중견의 위치로 자리를 굳히는 가운데 이들 작가 그룹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다양한 작가의식의 모색과 함께 60년대의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문학의 성숙기를 맞았다. 70년대의 아동문학계의 특징으로는 문학단체들이 잇달아 창립 문단의 파벌인상을 주었다. 이들 단체들이 친목을 도모하면서 나름대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문학의 현실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을 활발하게 모색하였다. 아울러 이원수 등에 의해 「문학의 庶民性」이 제창되었는데 이는 중산층 이상의 상류사회 아동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어린이像을 문학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아동문학이 결코 환상적이고 현실 외면적인 문학일 수만은 없다는 데 그 이념의 논리를 두었다. 문학적 경향으로는 동화의 순수한 문학적 본질을 옹호하면서 동화세계를 확대해 나가거나, 현실의식을 강하게 유지하는 리얼리즘의 소년소설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주홍은 후자에 속하는데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들은 리얼리티를 중시하면서 현실세계를 담아냈으며 이들은 때때로 어둡고 비참한 어린이 세계 그리고 현실 세태에 대한 풍자 의식을 강하게 반영하였다.⁸⁰⁾ 그렇다면 이주홍은 산업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다음에서 살펴도록 하겠다.

79) 조남현, 『풀이에서 매김으로』, 고려원, 1992, p101

80) 이상현, 앞의 책, p316~322

1) 자연과 환경 파괴 그리고 인간 소외

「이사가는 쪽군 부부」는 할아버지와 족제비가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전개된다. 태백산 밑이 고향인 족제비는 사람이 많으면 먹을 것들이 많다는 이유로 평지로 이사를 왔다. 처음엔 살기 좋던 곳이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푸념을 한다.

“그런 쥐나 개구리나 곤충 같은 것들이 공해 때문에 많이 줄었다 그 말인가?”

“바로 그거예요. 전날엔 그렇게 많던 것이 농약이다, 공장 폐수다 하는 바람에 자꾸만 수가 줄어들었지 뭐니까. 할아버지께선 최근에 시외나 농촌에 가 보신 일이 있으세요?”

.....

“먹을게 적어지고 어찌고가 문제 아니요. 저희들에겐 농약 공해보다도, 폐수 공해보다 생명을 위협하는 더 큰 원수가 있는 걸 어떡합니까?”⁸¹⁾

족제비들은 농약이나 폐수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양계장 주인이 덫을 놓고 족제비를 잡는 것이었다. 족제비를 잡아 가죽털 목도리와 오버의 장식용으로 쓰기 위해서다. 결국 양계장 주인과 족제비들과의 싸움에서 진 족제비들은 드디어 멸종 위기를 당해 쫓겨나게 된다. 대화 형식을 취한 이 동화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생명 사랑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동물들에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다. 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던 시대가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동물이 이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온 결과이기도 하다. 동물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인간도

81) 이주홍, 「이사 가는 쪽군 부부」, 『사랑하는 악마』, 창작과 비평사, 1983, p63~65

살아가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발전이 가져온 점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근대화 바람이 도시와 농촌의 생활을 변화시킨 점은 긍정적이지만, 환경오염이라든지, 물질만능주의, 생명경외사상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이주홍은 예전에는 살기 좋던 곳이 요즘 와서 황폐화되고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농약 공해와 폐수 공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족제비가 말한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가장 큰 원수'라는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컫는다. 이 이야기는 이주홍 할아버지와 족제비가 대화를 한다는 재미와 함께 산업화의 물결이 가지고 온 병폐를 생각하게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 오염의 문제는 「천신과의 약속」에서도 엿 볼 수 있다.

1977년에 발표한 「천신과의 약속」은 공중나라에 사는 앞돌이와 뒷돌이가 지상국에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리같이 맑게 갠 날에는 수평선 너머의 섬까지 아슬아슬하게 보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장의 굴뚝 연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 등으로 몹시 흐려져 있다. 그래서 앞돌이와 뒷돌이는 오염된 공기 속을 통과해 내려오느라 온 살갓이 까맣게 되었다. 앞돌이와 뒷돌이는 지상국 어딘가에서 '콩나물을 비료로 기르고, 고춧가루에다 톱밥을 섞고, 석회로 두부를 굳히고, 폐유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판다는 말을 듣고 지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보면 용하다고 생각한다. 짐을 풀기 위해 여관에 들어갔다가 가방을 비롯한 소지품 전부를 도둑 맞는다. 그래서 여관에서 쫓겨나 번개라는 도둑 두목을 만난다. 하지만 번개는 앞돌이와 뒷돌이가 타고 왔던 광선 발사식 신호기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높이 올라가서 눈을 떠보니 지상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혼탁한 지상국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섬나라에서 건너온 해적 떼들이 시시로 쇠파리같이 엉겨들지요. 십년이 지나고 이십 년이고 전쟁이 계속돼서 하루도 뻥한 날이 없지요.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도 늘어나는 인구를 따를 길이 없지요. 물가는 비싸고 세금은 천장같이 높아 가기만 하지요. 그러니까 강도, 절도가 사방에서 일어나 사람이 재물을 잃고 목숨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없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그것을 잘한다 못한다 말을 할려고들 않으니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맴니까.⁸²⁾

이 부분은 너무나 혼탁해진 사회의 모습이다. 일제 식민지 상황과 6·25 전쟁으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를 벗어나자마자 사회는 또 다시 개발의 불을 타고 발전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한다. 힘든 생활 때문에 사람들은 강도와 절도를 일삼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어도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방관한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도 옳지는 않지만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방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이다. 이와는 반대로 번개가 경험한 천상국의 모습은 돈을 가지지 못한 자에겐 밥 값을 받지 않고, 음식 재료들도 모두 공해를 입지 않아 혀끝이 감미로웠다. 그리고 천상국과 지상국의 모습은 다음에서 좀더 확연히 비교가 되고 있다.

“여보 이 넓은 길에 택시가 한 대도 안 보이니 무슨 일이오?”

“보행하는 사람이 소중한건데, 어떻게 자동차가 사람을 비켜 내면서 감히 다닙니까?”

밭마다 일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순경들이 엮어진 아이를 일으켜 주고 노인들의 손을 잡아 공손하게 길을 인도해 주고 있었다. 거기서는 농약도 안 쓰고 공장에서 폐수도 안 흘러내리는지 공중에는 많은 참

82) 이주홍, 「천신과의 약속」, 『청어뱀다귀』, 우리교육, 1996, p24

새들이 날고 있었고, 맑은 개천에서는 보기 좋게 물려다니고 있었다.

……중략……

어느 거리를 가 보아도 서로 시비하고 큰 소리를 내지르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 총이나 칼 같은 흉기를 구경할 수도 없었다.⁸³⁾

천상국에서는 약한 삶을 공경할 줄 알고 맑은 공기와 물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맑다. 「천신과의 약속」은 천상국과 지상국의 모습이 비교 되면서 산업화의 물결과 함께 찾아온 여러 현상들이 결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작품을 통하여 성장 일변도의 정책이 낳는 황금만능주의와 비인간화,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라는 현실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많이 벌려는 인간의 욕심과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은 시대의 어두운 모습이다. 그래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천상국이라는 이상 세계를 작품 속에서 건설한 것이다.

「제비꽃과 굴바위」는 천보산 공원을 배경으로 한다. 굴바위는 제비꽃에게 공원 안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이야기 해 준다. 세상 인심이 갈수록 각박해지면서 소외된 계층은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 사람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계층을 악이용 하는 경우가 있다. 옛날엔 순박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전혀 주변을 돌보지 않는다.

굴바위 아래에서 사는 사월 할머니는 4·19때 아들을 잃고 시민들로부터 남다른 대우를 받았다. 시민들이 영웅의 어머니로 떠받들고, 위문금을 모아 주고 신문사와 방송사에서도 나와 사월 할머니라 부르며 사진도 찍고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월 할머니는 더이상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게딱지만했던 오두막을 팔아 없애고 굴바위 아래에 살고 있다. 어린 정숙이는 고아원을 뛰쳐 나와 무서운 왕초를 만나서 구걸을 하다가 왕초와 경찰의 마찰이 생길 때 도

83) 이주홍, 앞의 책, p25~26

망쳐 온다. 이런 정숙이를 사월 할머니가 숨겨주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정숙이는 고아원 원장이 사회에서 기부로 들어온 물품을 암시장에 내다 팔고 원생들은 밥도 먹여주지 않고 매질을 가하는 악질 사업가였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고아원을 나온 것이다. 정숙이가 뛰쳐나와서 만난 사람은 구두땀이와 거지 아이들을 등쳐 먹고 사는 왕초였다. 사월 할머니와 정숙의 공통점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다. 시대가 주는 아픔으로 인해 더욱 상처 받고 외로운 사람들이다. 4·19로 인해 아들을 잃은 할머니를 그 당시엔 떠받들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는 시민들의 마음은 변덕스럽다.

사월 할머니는 천보산 공원이 유원지로 바뀌면서 매점이 들어서면 바람에 원래 좌판을 벌이던 곳에서 쫓겨나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를 잡고, 수양딸 정숙과 같이 지낸다. 어느 날, 매점에서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 온다. 다름 아닌 매점 주인의 동생이 찾아와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 갖자고 행패를 부린다. 형이 거절하자 동네 깡패들을 시켜 매점을 망쳐놓는다. 하지만 이를 말리는 사람도 하나 없고 모두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다. 이는 메말라 가는 사람들의 인정과 비양심을 말하고 있다. 형과 아우가 작은 것이라도 나눠 갖지 않고 혼자 갖는 이기심과 잘못된 일이 있어도 나서서 도와 주지 않는 사람들의 그릇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숙이는 사월 할머니 대신 좌판을 보고 있다가 왕초에게 붙잡혀 간다. 붙잡혀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정숙을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모두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이 곤란한 일에 휘말리려 하지 않는 냉정함을 볼 수 있다. 사월 할머니가 정숙을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젓가락 장단에 맞춰 봄흥취만 취할 뿐 신경도 쓰지 않는다. 늦은 저녁 공원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멎고 적막하기만 한데, 그 고요를 깨고 들려오는 소리는 정숙이 사월 할머니를 애타게 찾는 것이다. 사월 할머니와 정숙은 서로 부

등켜 안고 운다. 그 흐느낌 소리는 짹짹 굳은 고요 속에 완전히 먹혀 버리고 만다. 아무도 신경써 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소외된 계층은 언제 어디서나 힘겹고 불합리하게 당하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모든 사람들이 봄 향기에 취할 때 사월 할머니와 정숙은 자신들의 서글픈 환경과 싸워야 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감싸안을 수밖에 없다. 이 작품에서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사는 왕초와 고아원 원장의 모습은 혼탁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감싸안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은 각박해져가고 있는 당대의 현실이며, 형제끼리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점에서는 인간들의 이기심을 엿 볼 수 있다.

2) 비인간화와 평등 세상

「훈장 건 쥐」에서 끝동이는 새끼 쥐이다. 끝동이는 주인 집 아이가 내다 버린 만화 책을 주워 보며 즐거워하는데 엄마 쥐가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혼내는 바람에 큰 부자인 조부자네로 간다. 조 부자네 집은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고양이와 개를 많이 기르고 있었고 끝동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고양이와 개한테 물려 죽었다. 끝동이가 땅을 파고 고개를 내밀다가 큰 셰퍼드를 만나지만 셰퍼드에게 죽을 뻔한 끝동이는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한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끝동이가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라 셰퍼드의 행동이다.

“홍, 죽으려니까 슬픈 모양이구나?”

“그게 아녀요. 셰퍼드 선생님의 높으신 이름을 듣고 선물까지 사 가지고 찾아 뵈 건데, 저를 죽이기부터 하시려니까 선생님의 인격이 아까워우는 거여요.”

“아니, 아니, 내 이름이 높다구?”

“그럼요, 선생님의 이름이 높으시다는 것은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걸요.”

“아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런 말을 하고 있나? 하기가 그래서 그랬던 지 집을 잘 지킨다고 우리 집 주인이 내게 이런 훈장까지 걸어주기도 했지. 그런데, 가지고 왔다는 선물이란 뭐냐?”⁸⁴⁾

셰퍼드는 자신을 추켜 세우는 바람에 쥐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덩달아 자기 자랑을 한다. 그래서 결국 끝동이가 재미난 만화책을 더 가져다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걸고 있던 훈장까지 쥐버린다. 일반적으로 개는 쥐보다 힘이 세다. 그러나 「훈장 건 쥐」에서는 개, 셰퍼드가 쥐 끝동이에게 당하게 된다. 셰퍼드가 강자이고, 끝동이가 약자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의 강자는 끝동이고 셰퍼드는 약자가 된 격이다. 사람은 흔히 한 쪽 모서리만 보고서 그 전체를 평하는 수가 많다. 그 자신으로는 영리한데도 어미쥐는 항상 막내 끝동이를 번거충이로 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또 사람은 저만 잘난 체 으스대고 있어도 예상 외로 바보스러운 구석을 지니고 있는 자가 적지 않다.⁸⁵⁾ 영리한 끝동이와 자신의 힘만 믿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셰퍼드는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우화에 나오는 동물은 곧 인간 그 자체나 다름이 없으며 동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자인 개가 약자인 쥐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궁지에 몰리는 반전 현상은 자신의 힘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노랑이」에서 노란 빛깔의 개, 노랑이는 같이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업신여긴다. 노랑이는 아기닭의 깃을 수시로 물어 당기고, 하물며 엄마닭도 우습게 본다. 언제나 주인 집 식구가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으스대고 순수 토종인 귀한

84) 이주홍, 「훈장 건 쥐」, 『북치는 곰』, 견지사, 1996, p 27~29

85) 이주홍, 앞의 책, p95

집 출신이란 것도 개거품을 내 가면서 자랑을 한다. 남을 헐뜯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정도이다. 황소는 하는 일 없이 밥만 먹고 있고 돼지는 금(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가격)이 좋지 않아 사료 값 때문에 새끼를 낳아도 주인이 그냥 내다 버린다는 말을 스스로 없이 한다. 그리고 닭에게는 새벽도 초저녁도 모르고 제멋대로 울어 대기 때문에 미치광이 닭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는 등 함부로 말하고, 모든 동물들이 팔려나가도 자신만은 남아 있게 된다고 한다. 노랑이는 동물들의 기를 죽이면서 언제 어디서나 자랑을 일삼는다.

“너희들은 이 내 신분을 알고나 있는지를 몰라. 난 외국산의 피라고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우리 한국 순수 혈통의 토종이란 말야. 글썄 내 이 몸매부터 보라구. 크도 작도 않은 알맞은 키, 통통하게 쩌 있는 살, 피 꼬리빛은 저리 나가라 하는 노오란 털빛……주인이 나한테 반해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틀림없이 주인은 나를 자기의 비서쯤으로 알고 있을 거야.”⁸⁶⁾

이렇게 노랑이는 자신이 다른 동물과 똑같은 처지와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난 척을 하며 동료들을 무시한다. 이는 바로 우리 인간들도 자신이 좀 더 나은 환경과 처지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신분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 학벌의 차이 등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각양각색의 차별을 말한다. 이런 차이와 차별은 산업 사회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존엄성은 무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주느냐에 따라 가치를 매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은 결국 비극을 던져주기 마련이다.

86) 이주홍, 「노랑이」, 『오수릿골의 맹돌이』, 계몽사, 1983, p10

“엄마, 노랑이가 개장수한테로 끌려갔어. 보신탕집으로 가는 거라고 자 전거를 타고 온 어떤 낫선 남자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⁸⁷⁾

다른 동물들에게 자기 사랑을 열심히 하고 있던 노랑이는 주인 아저씨가 부른 소리를 듣고 반갑게 뛰어갔지만 노랑이의 마음과는 달리 노랑이는 개장수에게 팔려가고 더이상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양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인간의 가치는 그 존재로서 중요한 것이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은 사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대 산업 사회로 오면서 경제 성장과 과학 기술의 발달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인류에 공헌을 한 점은 목인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 서로간에 진정한 유대감을 상실하고, 물신의 노예가 되었으며, 개인의 존엄성을 파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미래를 향해가는 우리에게 「노랑이」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주홍의 동화에서는 시대에 따라 현실을 인식하는 양상이 조금씩 달랐다. 식민치하에서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당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이 어떠했는지 볼 수 있었으며, 힘의 논리인 강자와 약자의 모습을 통해 일본과 당대의 우리 현실을 살필 수 있었다. 그리고 해방 공간과 전후의 현실에서는 어른들의 삶이 곧 어린이들의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전쟁이 끝난 후 소외된 계층과 대조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자들의 이기심을 읽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 사회의 현실을 살피면서 산업화의 병폐가 보여주는 모습과 아울러 자만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전형을 보면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정리하면 이주홍은 시대마다 인식한 현실이 달랐을 뿐이지, 어느 시대든 시대

87) 이주홍, 앞의 책, p12

를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시대상과 인간관을 제시하여 주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IV. 이주홍 동화의 현실 인식 의의

문학은 현실의 반응이며, 작가는 그 시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나 정신을 추구하여야 하고 아동문학가는 어린이가 추구하여야 할 가치까지 제시하여야 한다.⁸⁸⁾ 작품으로써 현실에 관여하며 아동의 자태를 바른 눈으로 보고 그리며 그 현실이 부정적인 것일 때 그것을 강력히 배격하고 저항하는 정신으로써 작품을 써야 한다.⁸⁹⁾ 이주홍은 현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당대의 현실을 저항정신으로서 갈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어른들의 삶은 결코 어린이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삶을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였다. 이주홍의 동화는 어느 한 시대도 현실과 떨어짐이 없었으며 시대에 따른 현실을 바탕으로 시대의 모순을 읽으려고 한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주홍 동화의 현실 인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시대배경과 아동문학계를 살펴보았다. 일제 식민치하, 해방과 전후, 그리고 산업사회 등 굴곡의 시간들 속에서 당대의 현실은 힘들고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식민치하에서의 농촌은 식민지라는 시대적 설움과 함께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제약받고 살았다.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삶의 희망을 잃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주홍은 어려운 삶이더라도 굽히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동화를 통해 보여주었다. 「돼지콧구멍」에서 바로 종규

88) 김학선, 「거울과 렌즈」, 『아동문학평론42호』, 1987 봄, p34

89) 이원수, 「현실을 아름다운 것으로 위해」, 『아동과 문학』, 웅진출판, 1989, p34

가 그러한 인물이다.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심정을 종규라는 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또한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저 앉지 말고 일어서서 대항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건넨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 기준은 모호하지만, 강자와 약자의 모습은 존재한다. 강자는 언제나 강자, 약자는 언제나 약자라는 영원불변의 원칙이라면 우리들은 삶의 희망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주홍은 그의 작품을 통해 이 원칙을 극소화함으로써 좀더 약한 계층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활력소가 된다. 우리 나라는 건국 이래 유난히 침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강한 모습보다는 약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약한 자가 언제나 억눌려서 살기보다는 좀더 다른 세상이 되어서 약한 자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모습은 「개구리와 두꺼비」, 「호랑이 이야기」, 「청개구리」 등에서 우화로 나타난다. 문학이 허구를 필요로 하는데 그 허구는 현실의 삶을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것이다. 「개구리와 두꺼비」, 「호랑이 이야기」, 「청개구리」가 우리의 현실을 모델로 하면서 가치있는 삶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전쟁은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동시에 가져온다. 경제적인 궁핍함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른들의 삶이 결코 어른들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전후의 상황에서는 어린이들의 삶도 피해하다. 「비오는 들창」도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삶에 혼란스러움을 준다. 서로를 미워하고 미워해야 하는 어른들의 세계는 어린이들의 세계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미움의 감정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주홍은 이런 어린이들의 세계는 오히려 어른의 세계와 달리 이해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모델로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의의가 있다. 「섬에서 온 아이」에서도 어른들의 비정하고 삭막한 현실을 어린이들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후의 혼란한 현실은

어른들에게 각박하고 황폐함을 주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시대의 현실을 읽음과 동시에 비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경제적인 궁핍은 결국 사람들에게 관용의 미덕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 「가자미와 복장이」, 「아침길」에 나타난 인간의 욕심은 우리에게 반성적인 삶을 교시하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인간의 물욕은 끝이 없다. 하지만 이주홍은 비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 세계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삶을 윤곽하게 하려고 하였다. 「외로운 짬보」는 숲속 나라라는 유토피아를 설정하면서 현실의 갑갑함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주홍은 현실의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우리가 좀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홍은 해방과 전후의 혼란스러운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은 편리해지고 훨씬 더 여유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기아로부터의 해방, 풍요로운 삶의 조성 등은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가능해졌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발전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급격한 발전은 우리 인간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면서 인간성 상실과 비인간화를 가져왔다. 넘쳐나는 물질의 풍요는 우리에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일으키고, 개발의 붐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하였다. 인간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역습을 가한 격이 되었다. 이주홍의 동화는 인간 세태의 부조리를 캐고 고발하고 있는데, 부조리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부조리함에 저항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결국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주홍의 동화에는 역사의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있고, 우리 시대가 갖는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다. 이런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이주홍

의 문학 세계이다.

산업화에서 초래한 부정적인 모습은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다. 「이사가는 쪽군 부부」에서 족제비는 양계장 주인이 놓은 덫에 가족들이 죽어 결국 멸족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인간들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동물들을 마구 죽이게 되는 과정 속에는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우리들의 삶은 결코 자연과 떨어질 수 없는데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자연과 환경 파괴는 시대의 모순을 보여주면서 더 깊이는 인간의 삶도 모순을 불러 일으킨다. 이런 문제는 「천신과의 약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천상국과 지상국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시사하고 있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려는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다. 시대의 모순은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모순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지상국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지상국에서 벗어나 천상국으로 올라가는 것은 결국 현실 극복 의식으로서의 유토피아를 지적한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는 천상국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사실 산업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대신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빈곤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모습을 과시하는 자만심은 일종의 정신적인 빈곤에서 오는 모습이기도 하다.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일본 끝동이 생쥐에게 당하는 셰퍼드는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다. 내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할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양상이다. 빛깔이 곱다는 이유로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을 무시하는 노랑이의 모습도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바로 이런 모습들에서 이주홍의 현실 인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시대가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

이주홍은 1920년대 후반부터 작고하기 전까지 활동을 하면서 아동문학의 대중성을 위해 힘썼다. 재미가 있어야 아동의 흥미를 끌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작품을 썼다. 하지만 무조건 재미만을 내세우지 않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쓴 것이다.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모순과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환상과 꿈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동심천사주의를 옹호하지 않고 현실의 부조리와 당면과제를 보여주면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V. 결론

이주홍은 60여년간 문학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동화를 비롯한 모든 문학의 장르를 넘나들면서 활동을 하였지만 이런 활동에 비해 그에 대한 평가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지방 문단에서 활동한 점과 성인문학, 아동문학을 두루 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주홍의 평가는 제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가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든, 어떤 문학을 하든 작가의 위치를 정립시키는 것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작가의 작품 세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주홍 동화에서 나타난 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작품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이주홍의 생애와 작가의식, 그리고 그의 문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이주홍은 어렵고 힘든 생활을 체험한 것이 그의 작품 활동을 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작가가 자신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과 피지배층의 삶을 외면하지 않았고, 작가의 이런 삶의 태도는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는 모습으로까지 연결하게 된다. 작가의 삶은 작품 속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가는 자신이 사는 현실의 공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주홍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주홍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데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차 있었는지를 생각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는 작가의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주홍 동화의 현실 인식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먼저, 일제 식민치하의 현실을 살펴보았는데, 일제 식민치하의 농촌 세계를 지

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빈곤한 우리의 현실을 엿 볼 수 있었다. 일제의 수탈과 횡포가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에 소작인들의 삶도 극에 달했으며 이런 식민치하의 소작인들은 궁핍한 경제의 연속에서 버티나갈 힘이 없었다. 궁핍한 생활은 어른들도 견뎌내기 힘들지만 어린이들도 견뎌내기 힘들었다. 식민치하의 농촌은 나라를 빼앗겼다는 슬픔과 경제적인 고통으로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주홍의 동화에서는 이런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맞서 저항할 수 있는 모습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비록 당대의 현실이 지배를 받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나라를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친일 행동을 한 어른들의 행동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힘이 지배한 강자와 약자에서도 나타났다. 힘이 좀더 세다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이 사람을 알보는 모습은 시대와 인간을 우회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아울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해방 공간과 전후의 현실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의 우리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억눌려 있던 삶과 혼란을 추스르기도 전에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사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해방과 전쟁, 그리고 전후의 현실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박함을 주었다. 비가 오지 않아 논이 말라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메마른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미워할 대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의 자구책이었다. 「비오는 들창」의 강희의 태도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강희의 용서하는 마음과 태도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었다. 어려운 현실에서는 자칫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홍은 그의 동화를 통해 현실의 모순은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회 전체 모두의 문제임을 일깨우고 있다. 사회의 어려운 현실은 모두의 힘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개인의 사리사욕은 화를 가져온다는 자업자득의

모습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산업 사회의 현실 인식을 고찰하였다. 이주홍은 산업 사회에서 경제적인 도약이 가져다 주는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주제로 잡았다. 산업 사회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만약 부정적인 측면의 각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기 때문이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상대적으로 가져오는 정신적인 빈곤이 산업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주홍은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각성해 보아야 할 부분들을 지적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전에 우리의 삶이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이었다면 산업 사회는 각자의 삶, 개인 위주의 삶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삶은 결국 인간의 정을 앗아가 힘들고 각박한 세상을 만든다. 이에 이주홍은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현실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그 대안으로는 평등 세상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필자가 연구한 이주홍 동화의 현실 인식을 정리하면, 식민치하에서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저항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해방 공간과 전후의 현실에서는 사회의 혼란은 모두의 잘못이기에 용서와 화해, 포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주었다. 그리고 산업 사회는 산업화라는 것이 잘 살기 위한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괴한 자연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역습을 당할 수 있다는 것과 어떤 것을 가치있게 여겨야 하는가를 보여 주었다.

문학을 통해 시대를 생각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다. 또한 문학이 상상력에 의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는 반드시 낭만과 환상의 유토피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세계는 달리 말하면 각성된 세계를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시 말해 문학은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치는

일상의 삶을 의미 있는 각성의 차원에서 발견하게 하는 과정이다. 필자는 이런 과정을 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주홍은 현실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부정적인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고통을 웃음으로 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현실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주홍의 문학관도 조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지 그의 동화를 연대기별로 구분하여 현실 인식을 살핀다고 해서 이주홍의 문학을 깊이 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따른다. 이주홍의 문학을 좀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의 동시, 동극, 소설, 수필 등을 아우르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와 함께 본 연구의 부족함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 문헌

1. 자료

- 이주홍, 『못나도 울엄마』, 창작과 비평사, 1977
이주홍, 『아름다운 고향』, 창작과 비평사, 1981
이주홍, 『사랑하는 악마』, 창작과 비평사, 1983
이주홍, 『오수릿골의 맹돌이』, 계몽사, 1983
이주홍, 『청개구리』, 꿈동산, 1987
이주홍, 『북치는 곰』, 견지사, 1996
이주홍, 『가자미와 복장이』, 꿈동산, 1996
이주홍, 『청어뽕다귀』, 우리교육, 1996
이주홍, 『톡톡 할아버지』, 우리교육, 1996
이주홍, 『돼지 콧구멍』, 보리, 1999
이주홍, 『아동문학독본』, 을유문화사, 1962,

2. 단행본 및 계간지(잡지)

- 이주홍, 『예술과 인생』, 세기 문화사, 1957
이오덕,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작과 비평사, 1977
신동한, 『신화』, 범우사, 1977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이주홍 편저, 『한국인의 웃음』, 성문각, 1979
이재철, 『아동문학개론』, 집문당, 1983

이재철, 『한국아동문학 작가론』, 개문사 1983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웅진출판, 1984
이원수, 『동시 동화 작법』, 웅진출판, 1984
이오덕,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984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이규희, 『소년소녀 한국 문학』, 금성출판사, 1986
이상현, 『아동문학강의』, 일지사, 1987
박춘식, 『아동문학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87
김대환 외, 『한국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열음사, 1987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돌베개, 1988
최운식 외, 『문학교육론』, 집문당, 1988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89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이원수, 『아동과 문학』, 웅진출판, 1989
조남현, 『풀이에서 매김으로』, 고려원, 199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김시대, 『문학의 이해』, 이화 문화출판사, 1995
서범석, 『문학과 사회 비평』, 박이정, 1995
이재복, 『우리동화 바로 읽기』, 소년한길, 1995
문학과 사회연구회 엮음, 『문학과 현실의 삶』, 국학자료원, 1999
김용희, 『동심의 숲에서 길 찾기』, 청동거울, 1999
정선혜, 『한국 아동 문학을 위한 탐색』, 청동거울, 2000
이주홍 문학재단, 『이주홍 문학연구』, 대산출판, 2000
원종찬, 『아동문학과 비평정신, 창작과 비평사, 2001

최지훈, 『어린이를 위한 문학』, 비룡소, 2001
 이주홍 아동문학상 운영 위원회, 『이주홍의 문학과 인생』, 세한, 2001
 김상욱,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묻다』, 창작과 비평사, 2002
 김자연, 『아동문학의 창작과 실제』, 청동거울, 2003
 이주홍 문학 재단, 『이주홍 문학 저널』, 세종출판사, 2003
 아동문학평론 26호, 42호, 43호, 한국아동문학연구원
 아침햇살(통권 6호), 아침햇살, 1996
 창비 어린이 창간호, 창작과 비평사, 2003
 페리 노들먼,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1권』, 김서정 옮김, 시공주니어, 2001

3. 논문

천이두, 「양식과 관조 - 한국소설의 흐름」, 월간문학, 1972
 김천혜, 「두 편의 역사 소설, 이주홍의 〈어머니〉 〈아버지〉 론」, 부산문학 9집, 1982
 김정자, 「모티브로 본 김정한 · 이주홍 소설의 문체적 특성」, 어문교육론 8집, 1984
 송명희, 「현대 문학사의 산 증인 - 향파 이주홍」, 부산문화 4호, 1985
 김천혜, 「부조리에의 반역 이주홍의 〈수염난 동화〉 론」, 부산문예 20, 1986
 류종열, 「위식된 삶의 풍자 이주홍의 소설 세계」, 부산문화 13호, 1987
 김천혜, 「현실 인식의 문학」, 월간 문학, 1987
 송명희, 「이주홍의 역사소설과 역사적 상상력」, 문학도시 2호, 1995
 남송우, 「이주홍 소설에 나타난 일상성과 역사성 속의 인물」, 문학지평, 1996
 강남주, 「삶의 환희에 대한 문학적 추구 작가 이주홍의 편모」, 중심과 주변의 시학, 1997

- 류종열, 「이주홍 역사소설연구 〈어머니〉를 중심으로」, 외대논총 18집, 1998
- 박태일, 「이주홍 초기 아동문학과 〈신소년〉」, 현대문학이론연구 18집, 2002
- 조명렬, 「한국아동문학의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1972
- 김학선, 「한국 창작동화 · 아동소설 연구 - 1930년대 리얼리즘 작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1985
- 정춘자, 「이주홍 동화 연구 - 창작동화와 소년소설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0
- 박경희, 「이주홍 동화의 재미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3
- 허영석, 「이주홍 소설의 변모과정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4
- 신수진, 「마해송 동화의 현실인식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1997
- 김정현, 「마해송 동화에 나타난 저항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96
- 곽홍란, 「이주홍 동시 특성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0
- 손수자, 「이주홍 동화의 문체론적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0
- 문종현, 「이주홍 동화의 교재화 방안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1
- 박종순, 「이원수 동화 연구 - 사회의식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2
- 한 연, 「한 · 중 아동 문학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2002
- 정금자, 「이주홍 동화의 인물 유형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3
- 차희정, 「아동문학을 통한 인성 교육 방안 연구 - 이주홍 동화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3
- 이정임, 「이주홍 초기 사실 동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2003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ity Recognition of Fairy Tale
by Lee, Joo Hong

Jang, Young Mi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e, Joo Hong exerted himself in the popularity of juvenile literature, while he did work activity for 60 years or so. He had the view of literature to be able to lead readers, only in case that there is interest. This view of literature was not confined to simple interest, but it had will to try to implant right sense of value through work. This study groped for actuality recognition from the subjective viewpoint of fairy tale by Lee, Joo Hong on the basis of the consciousness of writer to try to find the discrepancy and solution of our life through actuality. The study on fairy tale by Lee, Joo Hong has progressed multilaterally up to now, but it has been handled only generally with only one feature of work. So, this researcher tried to settle the fairy tale by Lee, Joo Hong, examining writer's lifetime and writer's consciousness so as to make general study a little more and examining the actuality recognition of fairy tale by Lee, Joo Hong, in this thesis. For this, this researcher studied centering around the actuality which appeared per

periods clearly, by classifying the fairy tale by Lee, Joo Hong by chronicles.

First, it is said that our actuality in 1930s was too impoverished, as the result that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actuality which was revealed in the world under colony. Period when Lee, Joo Hong started literary world activity for the first time was the latter half of 1920s. Then, the days were the period when we were already under the ruling of Japanese imperialism. It is true that all the people had pain in this period, but it could not be expressed that our farm village was impoverished due to the business of land survey of Japanese imperialism. k so, Lee, Joo Hong described the poor actuality of tenants through the relation between tenant and landowner, and he was suggesting what the end of world to rule with power in the subordinate relation between Japan and our country was indirectly. The actuality of colony period showed the sad actuality of the weak in the relation between landowner and tenant & Japan and our country, and it suggested that the confrontation method for it was not frustration but strong will and resistance consciousness.

Next, it is true that the confusion of political situation brings distrust and unstable life to all the people in release space and post actuality. That the form of country is not formed right is accompanied by the actuality that the life of people is confused too.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disbelieve each other, and it enables all the people to lead unstable life after all. Besides, economy which became depressed due to war resulted in the confusion of country once again due to the people to try to fill material greed. However, the writer didn't accept difficult actuality as it was, but opened the door of

hope to seek ideal world.

Will toward ideal world is grasped as the message of hope for overcoming difficult society actuality without frustration.

Lastly, this researcher examined the actuality of industrial society. It can be said that the actuality of industrial society is the period to arouse attention to all of us. It is difficult to regard colony period, release space, and the society before and after it as the actuality which appeared due to the mistake of all of us. But, the negative form and actuality of industrial society made us consider them as the society of discrepancy that all of us aroused. The boom of development resulted in nature, ecosystem, and environment destruction. Relation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 animals and human beings is not vertical relation but horizontal relation, and it is the relation to get along. Then, industrial society forgot this formula and indulged in random development. So, it warned us of the fact that we may meet with a reverse and showed the actuality that all of us should make efforts and solve. Industrialization brought material richness but the poverty of spirit world instead. Then, this is connected with human alienation phenomenon. Material richness and mammonism resulted in the neglect of human existence, and they resulted in human being alienation, humanity loss, and inhumanity phenomenon. Goal that we live is for being joyful and happy.

But, the neglect of same human beings and the loss of humanity are same as the loss of joy of life. So, we may obtain the result that Lee, Joo Hong suggested which is right life, embossing the negative actuality of

industrial society.

This researcher came to draw conclusion that subject varied, as period varied but that any one actuality didn't turn away actuality, in the actuality of fairy tale by Lee, Joo Hong from the viewpoint of above summary. Lee, Joo Hong played the role of live witness in the history of our juvenile literature. And, he made a stroke in the history of juvenile literature, aiming at the popularity of massive work and juvenile literature. Besides, he was a writer who expressed the actuality and discrepancy of period with clear subject consciousness, experiencing the period of upheaval. Our life may be regarded as one history spot. Then, this researcher tried to clarify that fairy tale by Lee, Joo Hong suggested how we should live, catching this history spot with keen eyes.